



군산장례(전문)예식장



거품없는 장례비용으로 예(禮)와 정성(情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T. 468-4119, 4444



예식실



사우나실



2층로비

동군산 장례식장



'가장 가깝고, 가장 편리한 곳에서
마지막 친절을 보내주세요'

T. 441-4444



상상
그 이상을 향해!

SHIDAO International Ferry

P.S NEW SHIDAO PEARL / P.S GUNSAN PEARL
DAILY SERVICE



석도국제훼리(주) www.shidaoferry.com

군산 tel. 063-441-1200 fax. 063-441-1220

석도 tel. +86-631-728-6666 fax. +86-631-728-9399

서울 tel. 02-725-7811 fax. 02-725-1671

하역/운송사(주)제범 tel. 063-461-1803 fax. 063-461-1836

고용일이 생기는 대학

굿잡!

군장대학교

WURI 세계혁신대학 5년 연속 선정

산업적용가능성(Industrial Application) 부문

(랭킹 2020 45위, 2021년 27위, 2022년 32위, 2023년 31위, 2024년 30위 선정)

고등직업교육 품질인증대학 | 교육부 고등직업교육거점 지구(HIVE 1유형) 사업 선정
교육부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1,2유형) 선정대학 | 교육부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LIFE2.0) 운영대학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 고용노동부 고속련 일학습병행(P-TECH) 운영대학
교육부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 운영대학 | 교육부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 운영대학



사랑과 도전과 창조 의 대학

군장대학교

한 발 물러서서 서로를 바라보자

최근 군산항과 관련하여 몇 가지 논란이 벌어지면서 군산시가 전북 정치권의 중심으로 옮겨가는 모양새이다.

보기에는 좋으나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게 볼 보듯 하기에 여간 걱정스런 게 아니다.

군산시와 시의회, 그리고 항만업계는 군산항의 안정 수심 확보 등의 현안에 맞춰 건설되는 새만금신항이니만큼 군산항의 부속항으로서 지위를 부여하는 건 변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고 있다.

논란이 벌어진 자문위원단의 결정 또한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 알려질대로 알려졌다. 진즉부터 군산항을 중심으로 하는 원포트 항으로 지속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난 걸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김관영 지사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문단을 만들어서 그 의견을 좇아 해수부에 의견을 낸다고 약속한 내용과 최근의 행정 행위가 다르다는 이유로 군산 전체가 들고 일어났다.

군산의 여러 단체들과 항만 관련 업계가 나서 자문위원단의 의견을 해수부에 보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거리마다 걸었다.

김영일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장은 “갈등 해소를 위한다면 자문단의 결론을 해수부에 제출하면 되는데, 갈등이 우려되니 차후 제출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또 다른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급기야 지난 2월 7일 도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김영일 위원장이 “거짓말하면 안 된다. 도지사 당신 똑바로 못해”라고 고함을 치자, 지사가 “무슨 거짓말을 해, 이 양반이 지금, 이상한 사람이네” 등의 막말로 대응했다.

지사가 고향에 돌아와 치적을 홍보하는 자리인데, 화가 난다고 언성을 높이고 막말을 할 것까진 없었다고 본다. 체면을 구긴 김 지사는 사흘 후 깊은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내년 지방 선거를 겨냥하고 있는 김영일 위원장이 정치적인 이슈를 선점하려는 행동이라고 보지만 그 날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군산 출신 지사의 헛발질과 시의장 출신의 고함과 샷대질, 그리고 수습에 나선 모습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실망감은 어찌란 말인가. 그 날 이후 정치권에 지사가 새만금신항 문제와 새만금특별시를 두고 ‘달’ 하려는 게 아니냐는 소문이 퍼져나갔다.

한 시의원은 ‘군산 7명, 김제 7명, 부안 7명’으로 시의원 숫자를 잠정 결정한다는 이른바 ‘777안’이 떠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적어도 인구 증가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데 시작부터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냐는 것이다.

군산사람들은 수십년 동안 어업권 등 피해를 보았어도 새만금 방조제의 완공을 위하여 인내하고 앞장 서서 희생해 온 당사자들이다. 김제와 부안을 편하할 뜻도 없으며 그럴 이유도 없다고 보지만 방조제가 완공될 때까지 그들은 뭘 했는가.

최근 방조제 관할권, 동서도로 관할권 등등 인근 김제가 떡고물에만 올인하고 있는데, 지사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여론이 커진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김 지사의 새만금을 중심에 둔 광역시 구상은 미래지향적인 청사진으로 반겨줄 일이다. 그러나 지금은 시의원 숫자에서부터 차별이라고 하는 등 부정적으로 확 돌아선 여론을 걱정할 때이다.

이렇게 싸워서는 안된다. 이런저런 경로로 나오는 말들 또한 모두 믿을 수는 없다.

그렇더 하라도 군산 정치인들의 경계심을 그냥 흘려보낼 수는 없다. 반면 군산 출신 도지사를 너무 몰아세우는 듯한 행동 또한 경계해야 한다고 본다.

누가 누구 편이겠는가. 우리 모두가 군산 편이란 건 변할 수 없다. 모두가 피해자가 되기 전에 한 발 물러서서 서로를 바라보자.



글 채명룡
발행인

봉사와 나눔은 나의 인생, 김기봉 회장

한 걸음 또 한 걸음, 40년을 지켜 온 ‘신사의 품격’

글 | 채명룡
ml7614@naver.com

군산을 지키는 버팀목은 무엇일까.
군산의 미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군산에서 어른답게 살아 온 이가 과연 누구일까.

흙수저를 자처했지만 스스로를 낮출수록 은은히 빛났던 사람. 험한 세상에서 기부와 선행의 아이콘으로 살아 남은 재단법인 군산사회복지장학회 김기봉 이사장.

벽돌 한 장을 쌓듯 군산 지역사회와 함께 견디어 온 그를 오늘부터 ‘군산의 신사’, 젠틀맨으로 부르려고 한다.

【젠틀맨은 자신의 몸을 잘 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사람, 혹은 더 정확하게 말해 자심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다. (중략)

특히 어느 상황에서도 분노를 표출하면 안 되었다. 분노를 드러내는 일은 나약함의 표식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젠틀맨이라면 자신의 감정을 과장하기보다 오히려 축소해서 표현해야 했다.】

연세대 사학과 설혜심 교수가 2024년 7월 6일 동아일보에 기고한 “신사의 조건 - 흙수저라도 스스로 ‘부 - 품위 - 교양’을 갖추면 젠틀맨”이라는 칼럼 내용이다.

거친 시절을 지나 고회를 넘어 선 오늘까지 어려운 이들의 삶의 무게를 나눠 진 김기봉 회장.

그는 젠틀맨 칼럼 내용처럼 ‘나약하지 않게’, ‘과장되지 않게’ 봉사의 길을 걸어온 참 군산 사람이다.





아동·청소년과 함께하는 사랑의 밤

스스로 강해져야 나를 지킬 수 있다.

봉사와 희생으로 세상을 살아 온 그가 막 고희(古稀)를 넘겼다. 묵어갈수록 신사의 품격을 은은히 발산하는 김기봉 이사장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가 태어난 1955년, 아버지는 65세 어머니가 47세였다. 기적적으로 세상 빛을 보게 된 늦둥이 중의 늦둥이가 바로 그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먹고 살기조차 어려워졌다. 어머니는 초등학교 2학년인 그와 한 살 위 누나를 줄포의 큰형 집에 맡겼다. 곰소초까지 30리길을 걸어 다녔으니 학교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건 어쩌면 당연했다. 어린 나이에 '가다 말다'를 반복하면서 배움과는 점점 멀어졌다.

“한 겨울, 손과 발에 얼음이 박혀서 신발도 신지 못했어요. 누나와 함께 부둥켜안고 추운 방에서 날을 새기 일쑤였는데, 어느 날 2년 만에 어머니가 오셨어요. 동생들을 잘 돌보지 않은 형에게 크게 화를 내고 그 길로 모두 하제로 돌아왔지요.”

고향에 돌아오기는 했으나 가난의 죄는 무서웠다. 남의 집에서 잠자리를 얻기가 다반사였다.

“월남전이 한창일 때였는데, 파병 군인이 사다주어서인지 집집마다 귀중품이 있었나봐요. 그 때문에 좀도둑들이 날뛰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없어지지만 하면 저에게 화살이 돌아오는 거였어요.”

정말로 억울했다. 도둑놈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면 내가 그 좀도둑을 잡아야만 했다. 밤을 새는 게 일상이었는데, 결국 좀도둑들을 모두 잡았다.

하제에 돌아와서도 25리를 걸어 학교에 갔다. 논길을 가야만 했는데, 이른바 '논두렁'들이 떼로 몰려 나와 주먹질을 해댔다. 혼

자인 그가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그는 그 때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성장 과정 때문에 간혹 험한 출신이라느니 하는 말을 듣기도 했다. 핍박받으며 살아왔던 코흘리개가 스스로를 지키려던 일들이 이런 말로 이어졌으니 답답한 일이었다.





2012.4.13 운영위원회 창립 및 골프회 창단대회



연예인 자선 골프대회(2014)



2021.3.9 소상공인 후원을 위해 배달의명수 기금 전달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저는 건달들처럼 누구를 괴롭히거나 불로소득 하지 않았어요. 정당하게 사업을 하고 벌어서 어려운 아이들과 어르신,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복지 사업을 벌여왔지요”

누구나 자기만의 세계가 있고, 스스로의 가치를 위하여 자신을 불태우기도 한다. 그러나 30년 혹은 40년을 봉사를 하기 위하여 자기 희생의 길을 갈 수 있을까.

다른 이들의 시기와 질투, 혹은 이유 없는 비판을 묵묵히 삼킬 수 있을까. 묻기는 쉬워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봉 이사장은 싸리비를 엮듯 하나씩 하나씩 선행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불쑥불쑥 이어지던 호된 시련을 견뎌냈다.

“군산에 내려오니 ‘그랜드파’ 라느니, ‘백학관파’ 라느니 하는 주먹들이 있었어요. 어려운 상인이나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했더니 나름대로 제 말을 잘 들어주더라고요.”

한국관을 오픈한 청년 사업가의 말은 곧잘 통했다. 그런 걸 본 상인들이 그를 그랜드도 아니고 백학관도 아닌 통합파 ‘두목’이라고 이름 지어 불렀다.

그가 건달이라는 소리를 무시로 들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섭섭할 때도 많았으나 실망하지 않았다. 언젠가는 세상이 진심을 알아 줄 때가 있으리라 믿었다.

“저는 ‘사람은 열 번도 바뀐다.’ 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마음은 바뀔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진실하게 살면 그 진실을 버릴 수가 없는 것과 같은 이

치이지요”

세상 어느 누가 사업으로 벌여 30년~40년 동안 200억 원이 넘는 돈을 아이들과 어르신, 장애인들을 위해 쓸 수 있을까.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기부와 나눔은 이제 그의 캐릭터가 되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오늘도 그는 그 일을 위하여 양 발에 땀이 배도록 뛰고 있다.



2006.10.31 군고 여학기 기증



나를 지키는 게 뭘까?

“가깝게 지냈던 누나 아들이 있었는데 병어리였어요. 하체 근처에 레이더 기지가 있었는데, 어느 날, 놀 다니던 길 가에 종이 한 무더기가 떨어져 있었죠. 그걸 주어다가 공책으로 만들어 썼는데, 그게 사달이 났어요.”

어느 날 형사들이 찾아와 아무것도 몰랐던 그 병어리 사촌을 닥달하고 조사하더니 구속시켜 버렸다. 그 사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살해버렸다. 참, 억울한 일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종이 가 무슨 비밀 문서였는지 약품을 처리해서 글씨가 안보이게 만든 문서였다고 했다.

“이런 일을 지켜보면서 ‘나를 지키는 게 뭘까?’ 깊이 생각했었죠. 집안이 다 망해서 집도 절도 없고, 형제들의 도움도 받지 못했을 때지요. 돈도 백도 없는 내가 무엇을 하면 강해질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스스로를 지켜야 했다. 그런 고민은 군산역 앞의 합기도 도장에 다니는 계기가 되었다.

체육관 회비를 낼 돈이 없던 소년 김기봉은 매일 아침부터 관원들이 수련하는 모습을 유리창 너머로 훑쳐보았다. 눈물이 났다. “어느 날 관장님이 들어오라고 불러주시더라고요. 내 사정을 다 들더니 ‘운동을 해라’ 라고 허락해 주셨어요. ‘관장님이 운동을



2021.12.9 신광모자원 장학금 700만원 전달



군산시민축구단 후원

시켜주셨으니 청소라도 해서 보답을 하자라고 다짐했지요.” 도장에 나가면 신이 났다. 그 날부터 청소부터 굶은 일은 그의 몫이 되었다. 그렇게 운동을 하면서 ‘나 하나는 지킬 수 있다’ 할 정도로 성장했다.

어린 시절부터 누명도 많이 썼고, 험난한 시절을 거치면서 ‘못 배운 게 한으로 남았던 소년 김기봉.

‘돈 없어서 배우지 못하고, 누명 쓰는 일은 없어야 한다.’ 라는 생각이 사람을 돕는 일에 뛰어들게 되었으니 세상 일이란 참 아이러니하다.



10회째를 맞은 연예인 자선골프대회



군우정학회 현판식(1994.4)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행사



2021.9.17 금호엔비텍 자녀 장학금 전달

어느 날, 가까운 지인을 찾아 경찰서를 방문하였는데, 어린 아이들이 '워크맨'을 훔쳤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이었다. 문득 소년 시절 도둑으로 몰리면서 설움 받았던 지난 일들이 떠올랐다. 돕고 싶었다.

“경찰 지인에게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이 경찰서에서 나갈 수 있냐’라고 물으니, 신원보증을 서면 내 보내 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내가 보증을 설 테이니 풀어줘라’ 라고 했고, 아이들이 풀려났죠.”

80년대 중·후반 즈음 청소년들에게는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는 워크맨이 대유행이었다. 경찰서 일로 ‘아, 아이들이 갖고 싶은 걸 못가지면 나쁜 일도 하는구나’하고 생각했다. 그 인연으로 아이들을 돕는 길에 나서게 되었으니 또 하나의 등짐을 지게 된 셈이다. 봉사엔 눈 뜬 청년사업가 김기봉은 그 일을 계기로 어르신 잔치에서 한 단계 나아가 청소년들을 돕는 일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당시 군산과 옥구의 사회복지시설 원생 약 300명에게 ‘워크맨’을 구해 선물했다. 또한 아이들과 1대1로 전화를 해서 갖고 싶은 것들을 사주기 시작했다.

연예인들과 함께 아이들을 돕기 위한 자선 행사도 시작했다. 1987년 ‘소년·소녀 가장 자립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오늘의 사회복지장학회가 만들어진 모태가 바로 이 단체이다.

‘나와 같은 어려운 일을 아이들이 겪지 않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싹트었으며, 그 결과 40여 년 동안 청소년 장학 사업을 이어 온 것이다.

다시 태어나도 가난하고 힘없는 편에 설 터

봉사 인생 40년을 넘어서 그에게 시기 혹은 질투 따윈 이젠 먼 나라의 말이다. 세상이 알아주고 그가 도와준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진심을 알고 있기에 그렇다.



2017.5.18 목양원 바베큐 파티

1만원의 효행, 그리고 뜻하지 않은 경로사업의 중단

세상의 그 누가 어머니라는 이름 앞에 숙연해지지 않을 수 있랴. 자존심 강했던 그 또한 어머니라는 소리만 들어도 눈가가 촉촉해졌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큰 매형이 가장 역할을 했는데, 사업이 실패하자 집안이 완전히 기울어졌어요. 어머니는 변변히 몸을 누일 곳조차 없었어요. 그런 어머니를 도와주신 주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었거든요.”

그는 1986년 32살이 되던 해에 당시 가장 좋은 TV를 사서 고향 마을을 찾았다. 그리고 어머니를 돌봐주신 분들에게 1만원 신권 한 장씩을 용돈으로 드렸다. 지금의 1만원과 40년 전 1만원의 가치는 상상 이상이였다.

“고향 하제가 떠들썩했지요. 삶에 찌들고 오그라들었던 어머니의 가슴이 활짝 펴지는 것 같았어요.”

효심이 남달랐던 그는 하제의 어르신들을 관광버스에 실어 여행을 보내드렸다. 이게 발단이 되어 1990년대 중반부터는 군산시의 노인잔치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세상이 호사다마(好事多魔)라고, 뜻하지 않게 경로효친 사업을 중단해야 했다.

2005년 즈음, 장학회의 한 직원이 법인과 개인 돈을 구분하지 않고 썼던 게 문제가 되었다. 경로사업이 사회복지법인 정관 위반이라는 것이었다.

“장학회 정관에는 장학사업 70%, 복지사업 30%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 당시 노인들을 위한 여행 보내주기를 활발하게 했는데, 정관 위반이라는 이유 때문에 중단할 수 밖에 없었죠.”

사회복지장학회 출범 30주년을 맞으면서 가장 슬픈 기억은 바로 ‘어르신 모시는 사업’의 중단이었다.

어르신 세대들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이 희미해져가는 오늘에서 보면 무척 아쉬운 일이다.

세상의 모든 자식들이 그렇듯 효자 김기봉에게 어머니는 그를 지탱하게 해준 원인이자 결과였다.

“오래 살지 못하신 게 가장 가슴 아픈데, 하늘나라에서도 ‘잘 돌보지도 못했던 내 늦둥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컸구나.’ 하고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어르신들 용돈으로만 집 한 채 값을 쓰기도 했던 그의 효행은 두 고두고 군산 사회에서 회자되었다.

1995년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날, 하늘이 무너져 내렸다.

나를 건디게 해준 ‘아이들의 기도’

봉사와 나눔은 보답을 바라지 않는 게 기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봉의 인생에서 그의 이름을 놓고 기도해 주었던 구세군 목양원과 인연은 특별했다.

청소년들을 위한 그의 선행이 신문에 나면서 발달장애 아이들 부모회가 찾아왔다. 이 아이들과의 오랜 인연이 시작된 게 이 때 부터였다.

“그 당시 부모들이 회현의 증석초 건물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힘들었겠죠. 뭔가 도움을 주고 싶어서 티브이, 피아노도 사주었고, 지하수도 파 주었죠.”

발달장애 아이들은 자기가 꿈은 사람만 기억하지 아무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는 게 일반적이었다. 문득 문득 알아보기 힘든 글



씨로 편지를 써놓고 기다리는 아이들이 생각났다.
 “가끔 통닭이나 간식거리를 사두고 목양원에 갔어요. 아이들이 무척 기다렸었나봐요. 만나자마자 편지를 건네주곤 했는데, 알 아보기 힘들었으나 ‘김기봉 회장님 건강 하세요’라는 말이 또렷 했어요. 그 순간 이 아이들을 평생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죠.”
 그 곳에서는 일요일마다 ‘김기봉 회장님을 건강하게 해 주세요’ 하고 기도해 주고 있다.

2024년 연예인 자선 골프대회 10주년 때, 군산CC의 도움을 받아 발달장애 아이들 100명과 부모들 100명을 초대해서 골프 장 잔디 위에서 마음껏 뛰어 놀게 했을 때였다.

인사말 중간에 김기봉 회장이 몸이 안 좋아 내려갔다. 사회자가 하고 싶은 말 있는 사람을 찾으니 한 장애인이 손을 번쩍 들었다.

“부모회가 만든 목양원에서 30년 전 만났던 아이였어요. 나이는 마흔이 넘었으나 하는 건 그 때 그대로였죠. 그런데 ‘김기봉 이사장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였어요.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목양원의 하루하루는 김 이사장에겐 감동의 연속이었다. 또한 어렵고 힘든 오늘의 세상에서 그를 지탱하게 만든 힘이었다. 그것은 바로 ‘아이들의 기도’였다.



지역아동센터 학생 장학금 지원

‘베푸는 순간’ 잊어버려야 하는 봉사과 나눔의 길

봉사와 나눔은 기본을 지키기 무척 어렵다. 그러나 중요한 건 ‘베푸는 순간’ 잊어버려야 한다는 점이다.

그걸 기억하고 사소한 일에 마음을 두면 반대급부를 바라게 되는 것이다. 그걸 조심하고 경계할 때 참봉사자로 불려진다.

1979년도에 해병대에서 제대하고 리어가 장사 등등 험한 일을 할 때의 기억이 새로웠다. 밥 한 그릇이라도 먹여주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던 분들을 찾아서 보은하는 게 ‘나의 일’이 되었다.

“군산에서 대우자동차 공장을 지을 때 ‘함바’를 했고, 그 인연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했는데, 여러 가지 납품할 일이 많았어요. 저를 도와주셨던 분들을 도우려고 했어요. 그런 인연으로 오늘까지 30년째 내 생일 떡을 해오는 분도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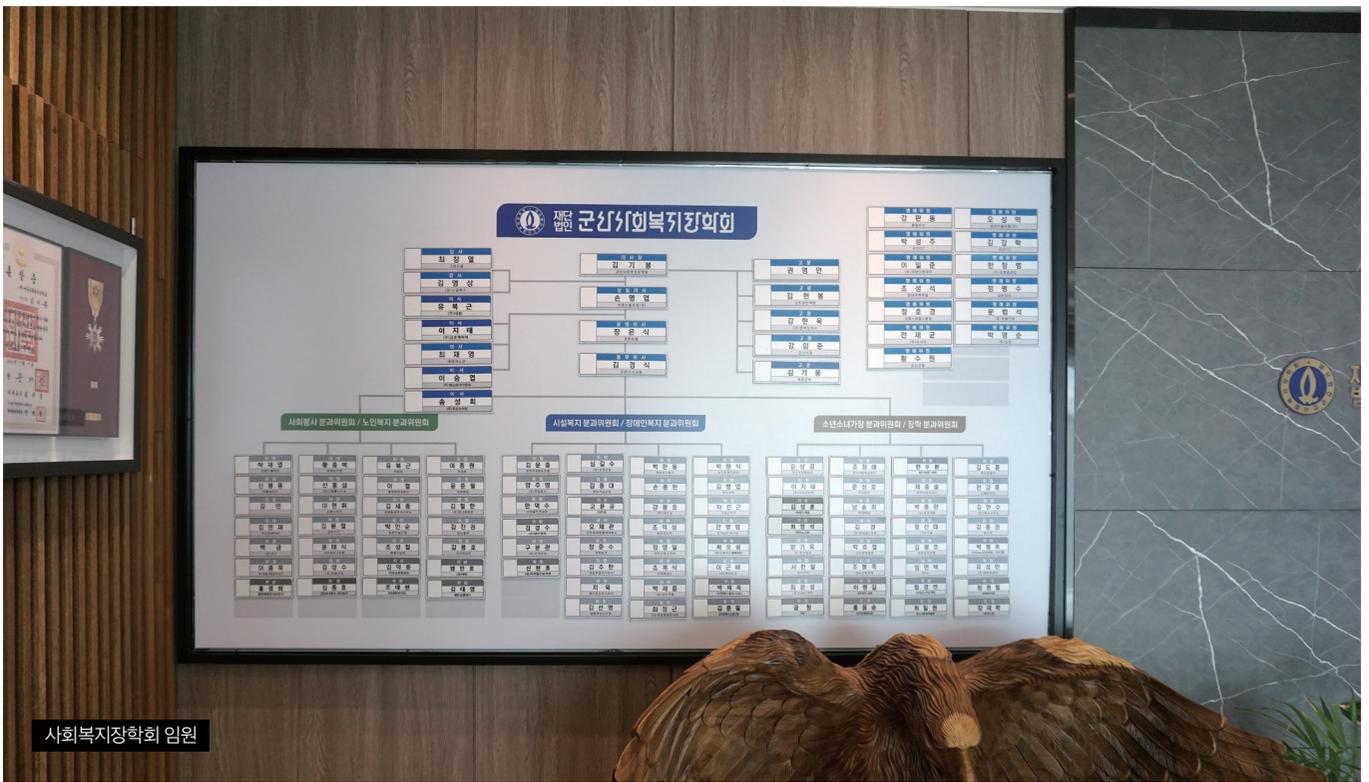
청소년들에게 특강을 하면서, “나는 여러분보다 어렵게 살았다. 배움도 적다. 나를 보고 용기를 내라.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했다.

“서울에서 가방공장을 하는데 미싱과 원단이 필요했거든요. 해군 장교를 알게 되었는데 부탁하니 일이 술술 풀렸어요. 이런 경험으로 사람들을 귀하게 여겼지요. 공장의 어린 직원들에게 ‘나는 못 배웠지만 너희들은 일하면서 꼭 공부해라’라고 ‘야학’에 다니라고 했어요.”

그 또한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한다.’라는 각오로 사업을 일으켰고, 그 힘으로 어려운 아이들 후원을 시작했으며, 오늘 날 군산사회복지장학회로 발전시켰다.

못 다했던 공부에 대한 그의 갈증은 학교에 대한 지원으로 풀려났다. 제일고에 인조잔디와 야간 조명탑, 군산상고에는 일제 피침머신, 군산고 농구부에는 타임워치를 해주었으며, 전북외고,





사회복지장학회 임원

영광여고, 동고 등등 학교마다 지원의 손길을 아끼지 않았다. “군산의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되어 지역 발전에 저해된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공부 잘하는 중학생을 잡아달라는 취지로 9개 고등학교에 매년 약 1,800만원씩을 지원해주시기도 했죠.” 2005년이 지나면서 영어가 화화 위주로 바뀌었다. 음성 인식 영어 어학기를 만들어 교육청과 여러 학교에 전달했다. 장학회 차원에서 말하기 대회를 열어 영어 공부를 확산시키는 데 일조했다. 그의 이런 노력이 이후 글로벌아카데미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이 지역 아이들을 인재로 키우려는 교육 사업들이 성장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장학금 5,000만원 후원

군산 사회복지장학리 김기봉 리장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 사회복지장학리 장학생 김연서입니다. 먼저 군산사회복지 장학리 김기봉 리장님과 장학리 리원님들의 후원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학금 덕분에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꿈을 실현하게 되었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동안 저는 '군산사회복지 장학리 장학생'이라는 자긍심을 가슴에 품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자긍심이 오늘도 저를 만들어주었고, 그 덕분에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장학금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은 넘어, 제 꿈을 이루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저는 올해 공무원 시험에서 수석으로 합격하고 진주지역에 발령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받은 군산사회복지 장학리의 은혜를 사회에 환원하며 공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할 다해 봉사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군산 사회복지 장학리 김기봉 리장님과 후원해주시고 깊은 배려와 지원해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전주공립고등학교 재학한 지난 6년 김연서 올림 -
감사편지



미국 바이든봉사상 금상수상(2022년 9월)

열 번도 바뀌는 게 ‘사람의 마음’

험한 세상을 살면서 외롭기도 했던 인간 김기봉. 눈이 확확 돌아가는 사업 제의도 많았으나 그는 분수를 지켰다.

그 또한 갈등이 없었겠으나 누군가를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걸로 가슴 속의 거대한 바람을 잠재웠다. 그리고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곳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데 인색하지 않았다.

“영화동에 사무실이 있을 때였는데, 스물여섯의 젊은 청년이 느닷없이 들어와 도와달라는 거예요. 노숙자 생활을 한다는 거였죠. 주머니를 털어 30만원을 주고, 깨끗한 옷을 사 입고 매일 장학회 사무실로 오라고 했어요.”

그 날부터 그 청년에게 굶지 않도록 매일 1만원씩 주었다. 몇 달 동안 용돈을 주고 면허증을 따게 해주었다. 취직도 시켰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 때 그 청년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혹시 잘못 되어 교도소라도 가지 않았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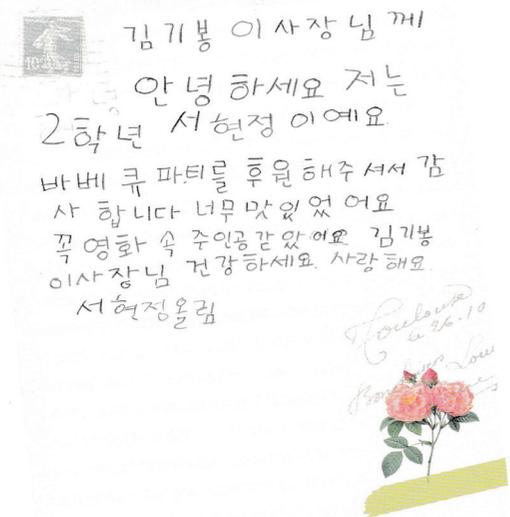
나라에서 하지 못하는 일, 그런 곳은 일이 바로 김기봉 이사장이 하는 일이다. 그러나 장학회가 잘 운영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에 잠이 안 온다.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사업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제게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장학회가 유구한 세월 군산과 함께 존재하는 일이지요. 그래서 장학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잘 되리라고 봅니다.”

약 12억 원으로 평가되는 지금의 장학회 건물도 법인 소유로 했다. 개인 재산이 아니라 장학회 자산으로 한 것은 이 장학회가 군산 사회에 영원히 존속하도록 만들려는 일환이다.

지난 1987년 소년소녀가장 자립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1994년 33명과 함께 군·옥장학회를 설립했다가 2년 후 재단법인 군산 사회복지장학회로 변경하였다. 1987년부터 오늘까지 장학금과 사회복지시설, 경로행사, 소년소녀가장, 취약계층 등에게 교육지원사업에 123억여원, 사회복지사업에 80억여원 등 모두 200억원 이상을 지원해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515



감사편지



2014.10.18 구세군후생원 바베큐

나라가 하지 못하는 일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군산시민 의장,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국무총리표창, 김영삼대통령 표창, 이명박대통령 국민포장, 문재인대통령 국민훈장 목련장, 대한민국 인성대상 등을 수상했으며, 2024년에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봉사상 금상을 수상했다.

진정한 신사, '젠틀맨' 김기봉 이사장

신사, 즉 젠틀맨이란 누구를 말하는가. 오늘과 같이 한 치 앞도 예단하기 어려운 세상에서 과연 신사가 있기는 한 것일까. 가진 것 없고 배움이 부족했다 하더라도 성장하면서 젠틀맨으로써의 자격을 갖추었다면 그게 바로 '진정한 신사'가 아닐까. 이런 물음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김기봉 이사장이다.



김기봉 이사장과 김경식 총무이사(군산시의원)

(재)군산사회복지장학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안2길 27,
지플레임스 6층 601호
Tel. 063) 445-8027
Fax 063) 446-0643

이당미술관 특별전 “예술과 치유”

총괄기획 고보연 작가

글 | 오성렬
poi3275@naver.com

지난 2월 5일 영화동 이당미술관에서 ‘예술과 치유-균열을 메우는 빛, 치유의 순간들’ 주제의 전시 오프닝 행사가 개최되었다. 2월4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이 전시는 예술을 통해 인간 내면의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정서적 평온과 성장을 모색하는 과정을 조명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으며 오프닝 행사장을 가득 메운 행사 관계자, 참여 작가, 관객들 모두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축하 인사와 덕담을 나누며 행사장을 빛냈다.

이날의 행사는 군장대 HIVE사업단 배인옥 팀장의 사회로 군장대 이진숙 총장 및 이승우 이사장의 환영 인사와 고보연 작가(군산관광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축하인사, 그리고 발달장애 클래식 기타리스트 이상헌의 연주(알함브라 궁전의 추억/Cavatina) 및 싱어송라이터 조시민의 축하곡(그 겨울의 시/흰 종이배 접어/첫마음)등 장내를 꽉 메우는 성황을 이룬 가운데 약 1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전시 오프닝 행사

이번 전시의 총괄기획자인 고보연 작가는 교동미술상, 전북청년미술상, 군산미술상, 광주신세계미술상, 하정웅청년작가상 등을 수상하며 예술계에서 중량감을 더해왔다. 전북대학교 미술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한 고 작가는 독일 드레스덴 미술대학 디플롬과 마이스터 과정을 통해 탄탄한 학문적 기반을 다졌으며, 군장대학교 겸임교수로 활동 중으로서 그간 다수의 개인전과 기획전을 통해 특유의 작품 세계를 확장하고 있다.

고나영, 고보연, 김덕신, 김병철, 김인규, 김진아, 남민이, 류인하, 문귀하, 박소연, 박정아, 박지수, 박현민, 송하나, 우창미, 유기종, 이미영, 이일순, 임유선, 정현주, 채영숙, 최광석, 최선우, 최선주, 홍성미 등 총 25명의 작가가 참여한 이 전시는 예술이 지닌 치유의 힘을 통해 삶의 풍요로움을 재발견하고, 인간 내면의 깊이를 탐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미술 치유를 중심으로 예술이 단순히 시각적 즐거움을 넘어 개인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회복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조명함으로써 예술이 전하는 위로와 공감의 메시지를 온전히 느끼며 치유와 성찰의 과정을 함께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기념하고 지역 정체성을 담은 예술적 성과를 조명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이당미술관과 군장대학교에서 군산시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의 문화공감프로젝트 후원으로 진행되었는데 이진숙 군장대 총장은 인사말에서 “예술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포부와 함께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이진숙 총장, 고보연 작가, 이승우 이사장



인사말하는 군장대 이진숙 총장



싱어송라이터 조시민의 축하곡 연주



기타리스트 이상현



이는 이러한 취지를 바탕으로 예술이 단순한 표현 수단을 넘어 개인의 정서적 회복을 돕고 지역사회 내 소통과 연대를 촉진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단순한 관람을 넘어 실질적인 치유와 공감의 장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이다.

작가들은 예술이 단순한 미적 경험을 넘어 사회와의 소통과 비판적 성찰을 이끄는 강력한 매체임을 보여준다. 작품은 개인의 감정과 내면의 갈등을 사회적 맥락 속에서 풀어내며, 관람객들에게 예술이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고 내면의 고요를 찾는 도구로 작용함을 체험하게 한다. 이를 통해 관람객들은 자신의 삶과 내면을 성찰하며 예술이 전하는 깊은 울림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시간이 흘러 단단히 다져진 흙이 새로운 생명을 품는 자연의 순환과도 닮아있다.

참여 작가들은 창작 과정에서 억눌린 감정과 내면의 갈등을 예술적 언어로 풀어내며 이를 치유와 회복의 여정으로 승화시킨다. 서양화, 한국화, 사진, 설치미술 등으로 구성된 작품들은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예술적 경험을 제공하며, 예술이 마음의 균열을 메우고 조화를 이루는 도구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특히 단

순한 미적 감상을 넘어 예술의 치유적 가능성과 심리적 안정의 과정을 심도 있게 조명하며, 군산 시민들과 함께 치유와 성찰의 의미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작품들은 개인적 경험과 내면의 갈등을 사회적 맥락 속에서 풀어내며, 정체성, 상처, 그리고 치유의 이야기를 담아내어 관람객들에게 깊은 공감과 통찰을 선사할 것이다.

이당미술관은 순수문화예술 비영리단체로, 영화동에 위치한 옛 영화목욕탕 건물을 지난 2015년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켜 개관했다. 1층의 널찍한 목욕탕 내부는 동네미술관 및 카페 보화각으로, 윗층의 여관 시설은 근대문화역사 지구를 탐방할 수 있는 창작스튜디오로 탈바꿈되었다. 이당미술관은 지역문화와 한국문화, 나아가 아시아 문화예술의 중심지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며 한국 미술계의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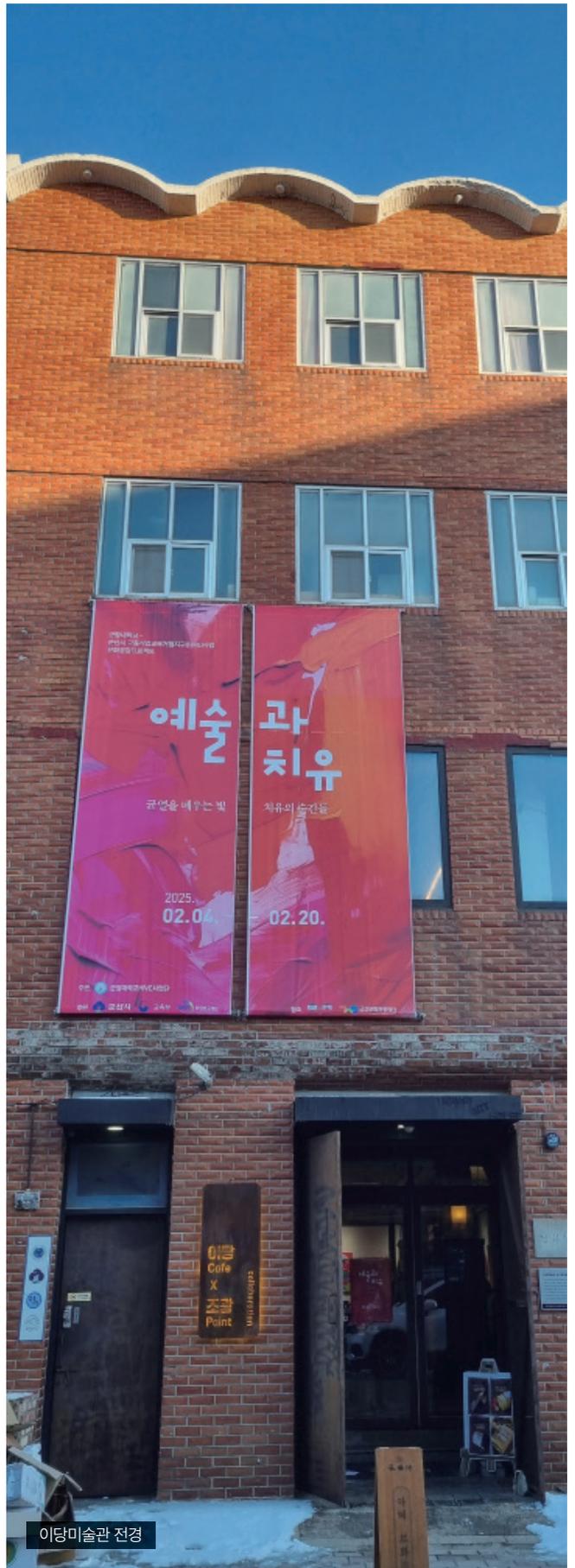
따라서 이를 위해 대중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기획 전시와 작가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문화예술의 가치를 널리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예술이 단순한 감상의 대상을 넘어 인간 내면을 치유하고 사회적 상처를 보듬는 힘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한 미술관의 정봉화 이사장은 “예술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지나치기 쉬운 내면의 목소리와 상처를 발견하고 이를 회복과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는 강력한 도구”라며 전시의 의의를 설명했다. 따라서 지역 예술가들과 협력하여 지역 정체성과 예술적 다양성을 드러내는 데에도 힘쓰고 있으며 예술이 개인과 지역 사회 모두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를 향한 희망과 조화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으로 주목 받고 있다.

이당미술관/카페 보화각

군산시 영화동 19-18(구영6길108)



이당미술관 전경

미술에 ‘혼’을 담다

군산미술협회 조연식 회장

글 | 신성호
shinez2580@hanmail.net

을사년 새해 들어 입춘이 지났는데도 기온은 낮고 폭설에 삭풍이 불어오니 아직 봄은 저 멀리 있는 듯싶은 날에 군산미술협회 조연식 회장과 만남의 약속을 하고 나운동에 위치한 고즈넉한 k 카페에 앉아 기다리고 있으니 깔끔한 정장차림의 모습으로 들어와 반갑게 만나 허즐러 커피를 시켜 마시며 최근 근황과 군산미술협회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공공미술프로젝트(해맞이길)2021.02



군산예총 회장님 축사



개관 커팅식

타고난 재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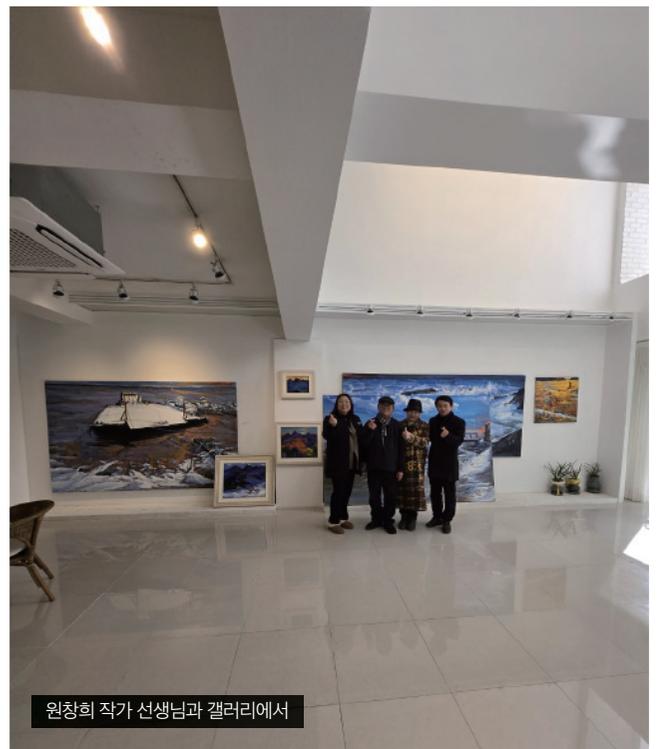
조연식 회장은 지리적으로 환경의 영향을 받는 아메리칸 타운과 군산 미군 비행장이 가까이 있는 문창마을에서 2남 5녀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나 자라면서 성격도 식성도 아메리칸 스타일로 김치보다는 초콜릿과 햄버거를 좋아하며 성장했다.

그 당시 아버지는 건축일을 하셨는데 목공일에 뛰어나 일본까지 갔다 오셨는데 아버지의 하시는 일에 영향을 받아서 조연식 회장도 현재 산업디자인을 전공하여 건축 및 인테리어 디자인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미술과의 인연

조연식 회장은 출생에서부터 군산 토박이로 문창초, 군산남중, 군산고, 호원대학교 산업디자인과를 졸업하였고, 어렸을 때부터 그리기를 좋아해서 군산고등학교 미술부 생활을 하며 그림에 대한 꿈을 키워 왔지만, 아쉬운 것은 순수 회화보다는 응용디자인에 더 적성이 맞아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며 직업과 작품활동을 하며 생활을 하고 있다.

일과 작품활동을 꾸준히 해오다가 드디어 작년에 (사) 한국미술협회 군산지부 회장으로 선출되어 그 꿈을 키워 나가고 있다.



원창희 작가 선생님과 갤러리에서



2022. 9 제 52회 군산미술협회전—(사)한국예총



전주시 서신동 통일광장 친수공간 저탄소 녹색공간 버스조형물 제작 설치 (위치 전주 롯데 백화점 앞공간)

미술협회의 활동

2025년은 조연식 회장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로서 (사)한국미술협회 군산지부장을 맡게 된 것이 의미가 크다.

사실 미술협회와의 인연은 군산고등학교 미술 스승이신 제6대 지부장을 역임하신 원창희 선생님과 원로작가 선배님들의 군산 미술 역사와 전통을 60여 년간 지켜오신 자긍심의 발로가 되어, 2013년 가입 후 회원으로 활동 중 2020년~2021년 디자인분과 위원장을 맡아 회원전, 아동공모전 등등 활동을 했으며, (사) 전라북도 산업디자이너협회 활동과 2019~2021년 국제라이온스 협회 356-C지구 군산라이온스 회장을 역임하며 20여 년간 지역 사회에 봉사활동을 통해 큰 보람을 가졌다.

또한 2021년~2022년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행정총괄을 맡아 문화 체육 관광부, 전라북도와 군산시와 연계하며, E-나라 도움 시스템을 통하여 프로젝트를 완수하였던 경험을 토대로 주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역문화예술을 조성하고 성장 발전시켜야 하는 소명을 가지게 되었다.



조연식 회장



제20대 지부장 취임식 및 제3회 미협 회원전(24.13)

옹비하는 미술협회의 비전

2025년 (사) 한국미술협회 군산지부 제20대 지부회장으로서 회원간의 소통과 화합 그리고 체계적인 협회 운영으로 회원간의 화합과 협력,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군산미술협회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내적으로는 군산미술협회가 날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시대의 흐름을 선도하며 문화 예술을 한층 더 크게 성장시켜서 지역문화 예술의 창작활동과 성장 동력에 이바지하면서, 또 하나의 숙원사업인 군산시립미술관 건립의 꿈을 이루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이뤄 내는데는 하늘이 조연식 회장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하고 그 소임을 다하고자 마음에 새기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다짐한다.



2022 군산아트쇼—군산미협 제2대 지부장 최예태선생님과 함께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군산지부

군산시 큰샘길29 2층



하얀 꽃, 눈꽃 세상이 된 은파호수

눈 내리는 은파호수를 걸어 본 적이 있는가

글 | 박세원
hamp38@hanmail.net

밤새 내리는 눈에 마음을 빼앗긴 채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얀 눈송이들이 사뿐히 내려앉는 소리는 그들이 쏟아내는 미세한 독백이요, 어둠속에서 세상과 마주하는 첫 키스이다. 눈 내리는 모습을 보니 짜리문 위로 밝은 달이 비춰주던 고향의 밤이 그림처럼 떠오른다. 은파호수는 도심 가까이에 있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군산의 보물이다. 포근하게 내리는 눈이 야트막한 산으로 둘러싸인 은파호수의 겨울이 시작되었음을 알린다. 은파호수에 내리는 눈은 깊은 땅 속 숨겨진 생명들을 따스하게 덮어 주는 엄마의 치맛자락과 같다. 일상에 지치고 고단한 우리에게 들려 줄 이야기를 담은 채 은파호수 눈꽃 세상이 시작되고 있었다





밝아오는 여명

지치고 힘들 때는 은파호수에 와 보라.

필자의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은파호수는 매일 아침 산책하는 길이다. 밤새 내리던 눈꽃 세상이 궁금해 카메라를 돌려매고 서둘러 찾아간 은파호수공원. 동녘 하늘의 여명이 밝아오며 겨울아침 은파호수가 깨어나고 있었다. 지난밤의 고단함을 내려놓고 호수 위로 하얀 눈꽃이 얼굴을 내밀면 그 소리에 움츠렸던 철새들의 날개가 기지개를 켜다. 시베리아 어느 섬에서 심 없는 날개 짓을 하며 날아 와 동지를 튼 철새들. 어젯밤도 시린 어깨를 기대며 갈대 숲 사이에서 포근히 잠들었던 새들이 행인들의 발자국 소리에 놀랐는지 파닥거린다.

은파공원 제 1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눈을 맞으며 데크길을 걷다보니 눈꽃에 가려 보이지 않던 호수의 이야기가 들려온다. 그 이야기를 따라 호수를 한 바퀴 돌아보자.

쌀물방죽 미제지(米堤池)의 전해져 오는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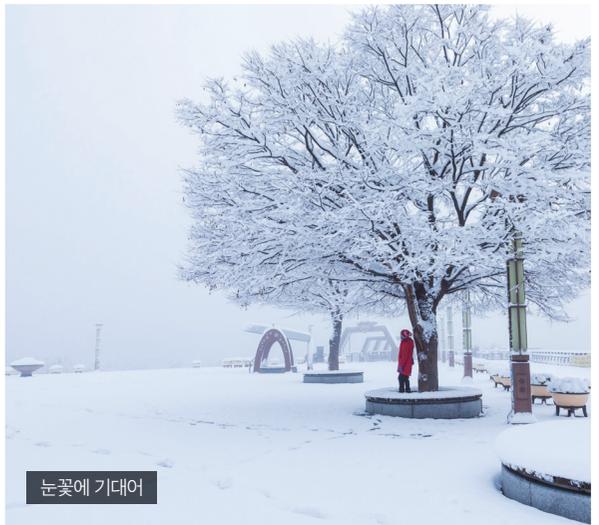
은파호수의 옛 이름은 미제지(米堤池)다.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 나타나는데, 처음 등장한 곳은 1530년(중종 25)에 제작된 인문지리서 《신증동국여지승람》이다. “미제지는 옥구현 북쪽 10리에 있으며 둘레가 일만 구백십 척(6.9km)”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미제지는 《신증동국여지승람》보다 앞선, 조선 왕조 이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한다.

미제저수지는 ‘쌀물방죽’이라는 이름 그대로 주변 평야에 농수를 공급하기 위해 만든 농업용 저수지였다. 구름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호수 같지만, 사실은 독으로 막은 인공 저수지다. 길이 270m, 높이 약 10m, 너비 4m의 작은 독이지만 군산의 오밀조밀한 지형을 이용해 거대한 저수지를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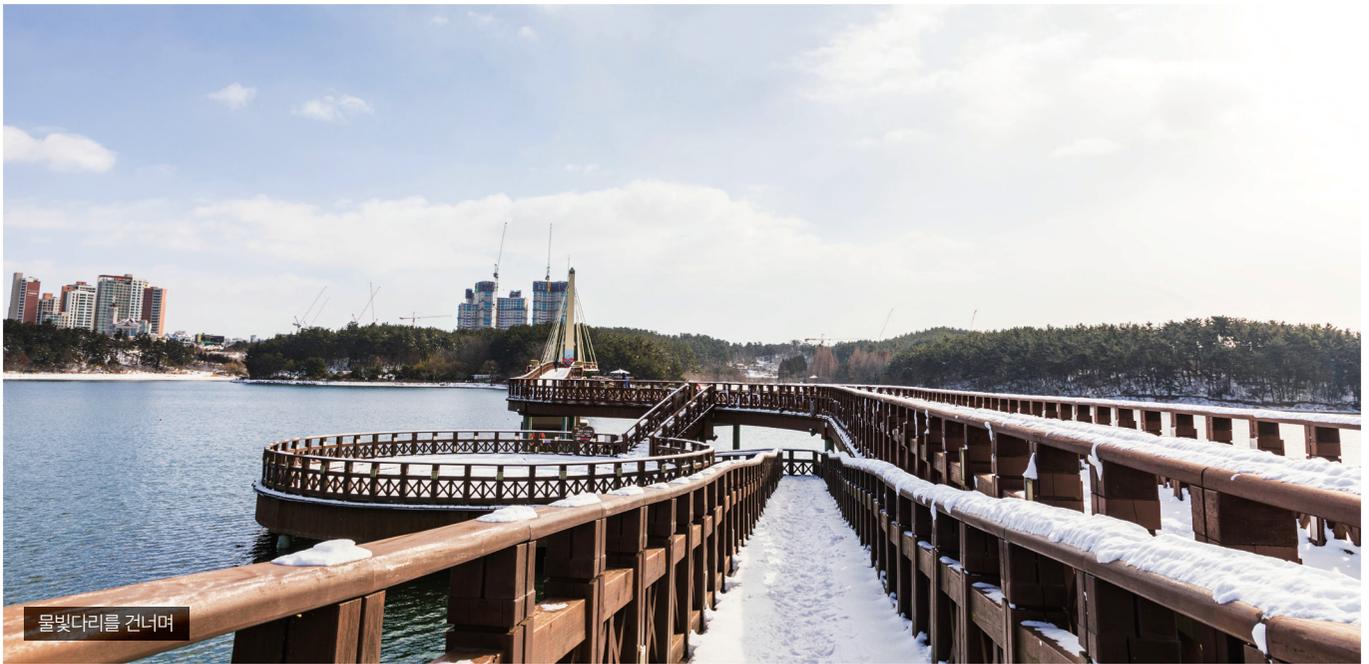
새벽 동행에 나섰던 일행 중 유난히 군산 기행에 관심이 많은 선배는 그 날 군산의 3개 호수 중 은파호수를 선택했다. 그는 ‘햇빛에 비치는 아름다운 물결’이라는 이름을 가진 은파호수의 독을 걸으며 옛날이야기를 풀어 놓기 시작했다.



인생은 나그네길



눈꽃에 기대어



물빛다리를 건너며

“옛날에는 여기에는 못이 없었지요. 이곳에 심술 사나운 부자 한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천성이 인색한데다 마음 씨조차 나빠 가난한 이웃이 있어도 한 번도 도와주는 일이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초라한 옷을 입은 선비 한사람이 이 집 문 앞에 와서 하룻밤을 재워달라고 요청했어요. 이것을 본 부자 주인은 재워주는 대가로 앞에 있는 논이 벼를 다 베라고 시켰어요. 선비는 할 수 없이 벼를 다 베기로 하였지요. 선비는 공부를 하느라 지친 몸으로 힘든 일을 하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 집 며느리는 안타까운 마음에 선비를 따뜻하게 돌 봐 주었어요. 그 모습을 본 시아버지는 벌컥 화를 내며 그 둘을 한 밤중에 아꼈어요. 며느리는 남편이 죽고 자식 하나만 데리고 사는 청상과부였어요. 쫓겨난 며느리는 하는 수 없이 선비와 멀리멀리 가서 열심히 살다가 남편이 과거시험에서 장원급제를 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살던 옥구현의 현감이 되었지요. 동네 사람들이 인색한 시아버지가 어려운 사람들의 땅을 빼앗는다고 하소연을 했어요. 현감은 조사를 정확히 하여 빼앗긴 땅을 찾게 해주고 소원을 물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농사에 필요한 못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못을 만드는 일은 돈도 많이 들고 일하는 사람도 많아야 하는 등 아주 어려운 일이었어요. 현감과 며느리는 부처님께 못을 만들게 해달라고 백일기도를 하며 지극정성으로 빌었지요. 백 일째 되는 날, 큰 비가 내려 이 못이 생겼대요. 마을 사람들은 이 못에 물을 대며 농사를 지어 다른 마을 사람들보다 잘 살았대요. 현감은 그 후에도 마을 사람들을 잘 보살피는 정치를 하다가 죽었는데 하늘도 감동하여 못 옆에 현감 바우, 며느리 바우, 아기 바우를 만들어 은빛 물결을 평생 볼 수 있게 해 주었대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이지만 현재 은파호수는 이렇게 해서 생겼다고 해요. 지금도 이 호수에서 은빛 물결을 보는 사람은 현감과 며느리가 살피주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니 은파호수 많이 사랑해 주세요.” 라며 이야기를 마쳤다.



하얀 두루마기를 두른 듯 의연한 소나무



호수의 설경



구불길을 돌아 보면 가슴이 시원해지는 아침

군산시민의 쉼터가 되어 준 은파호수. 물빛다리를 건너면 호수의 기둥인 양 다리를 떠받들고 서 있는 소나무 몇 그루가 하얀 두루마기를 두른 채 의연하게 서있다. 눈 속을 헤치며 걷다 보니 어느새 '세 바위'를 지나며 산책로가 끝이 난다. 수변산책로는 전체 8.56km로 한껏 여유를 부리며 걸으면 2시간 남짓 소요된다.

고개를 넘을 때마다 메고 온 삶의 무게가 버겁다고 투덜대던 어깨가 움츠러들 때 짙멀리서 여명이 밝아온다. 하얀 설경 위 은파호수 위로 따스한 햇살이 한 줌 내려와 앉는다. 호수 위로 밤새 내린 눈이 미끄러져 사라진다. 이야기를 따라 구불길을 돌아 한없이 걷다 보면 은파호수의 길이 우리네 인생 여정과 닮았다는 생각이 든다. 끝날 듯 돌아서면 다시 나타나는 언덕, 다시 돌아서면 호수는 맑은 얼굴로 맞아 준다. 벌써 눈길을 헤치고 산책 나온 사람들과 마주치며 눈인사를 나눈다. 은파호수에도 걷다가 지친 시민들이 따스한 차 한 잔을 나누며, 책 한 권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 기대해 본다. 이렇게 겨울 장관을 이룬 눈꽃 세상이 마무리 된다. 어느새 움츠렸던 가슴이 땀 뚫리며 시원한 아침을 맞는다.



호수 위로 떠오르는 햇살



은파 메타세쿼이아



군산에서 만나는 역사, 문화, 자연

관광도시 군산, 각종 즐길거리 가득

정리·사진 | 김혜진
dhik0324@hanmail.net

군산시는 '역사와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특별한 여행지 군산 추천 관광지 6곳'을 직접 선정해 홍보에 나섰다. 근대문화유산이 가득한 원도심에서의 시간여행 부터 천혜의 자연경관과 지질 명소를 탐방할 수 있는 군산의 추천 관광지는 과연 어디일까.



진포해양테마공원



백년광장



근대건축관



근대센터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가족들과 함께하는 역사여행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일제강점기의 군산의 생활상을 배경으로 한 근대사와 우리 민족의 항일 역사를 보여주는 군산의 대표 박물관이다. 또한 근대화도시 군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주요 관광지점이다.

박물관에서는 과거 무역항으로 해상 물류 유통의 중심지였던 옛 군산의 모습과 근대문화자원을 전시하고 있다.

박물관에서 나오면, 일제강점기 경제적 수탈의 현상이었던 근대건축관(구 조선은행 군산지점)과 근대미술관(구 일본 제18은행), 백년광장, 진포해양테마공원, 영화시장, 월명동 일대 근대센터 등이 자리해 있다.

원도심에서 만나는 추억의 장소, 초원사진관

초원사진관은 1998년 개봉한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촬영지로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배우 한석규, 심은하 주연의 1998년 작 <8월의 크리스마스>는 많은 영화 팬들에게 큰 인기를 끌 초원사진관은 이제 영화와 함께 기억되는 장소가 되었다.

특히 옛 향수를 간직한 영화팬들에게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감동적인 경험을, 영화를 잘 모르는 MZ세대에게는 특유의 감성적인 분위기를 선사하면서 매년 관광객 수도 늘어나고 있다.

초원사진관 한쪽에는 심은하 배우(다림 役)가 타고 다녔던 자동차가 주차돼 있어 더욱 색다른 추억을 남겨 준다.



초원사진관 옆 다림이 타고 다녔던 차



경암동 철길마을,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명소

경암동 철길마을은 철길과 그 주변의 골목길들이 어우러져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특별한 장소이다.

가장 먼저 군산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고 레트로한 감성을 갖길 원한다면 경암동 철길마을에 들러볼 것을 추천한다.

특유의 빈티지한 분위기 덕분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이곳은 철길을 따라 늘어선 작은 가게들이 마치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나는 듯한 느낌을 준다.

무엇보다 철길을 배경으로 옛날 교복을 입고 찍는 사진은 과거의 향수를 듬뿍 누리고 싶은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로 자리잡았다.

군산 여행이 처음이라면, 좁은 골목길을 따라 이어지는 철길을 걸어보며 향수에 젖어보면서 달고나, 쫄면 등의 맛있는 먹거리도 즐겨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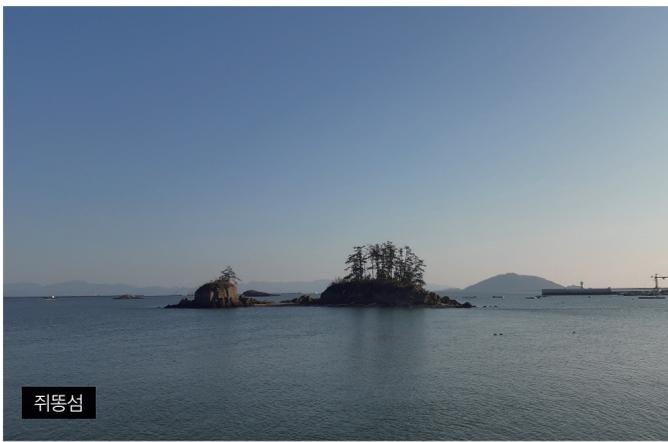
고군산군도, 자연의 신비를 간직한 천혜의 명소

아름다운 섬의 군락인 고군산군도를 가보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군산여행을 다녀왔다고 할 수 없다.

선유도를 중심으로 신시도와 무녀도, 장자도 등 16개의 유인도와 47개의 무인도로 이뤄진 고군산군도는 천혜의 해양관광 자원을 보유한 관광명소이다.

2017년 새만금방조제를 통해 고군산 연결도로가 개통되어 6개의 섬을 차량으로 오갈 수 있게 되면서 접근성이 향상되었고, 2023년에는 문체부 K-관광섬 육성사업에 말도, 명도, 방축도가 선정되어 서해안권에서 제일가는 명소로 발돋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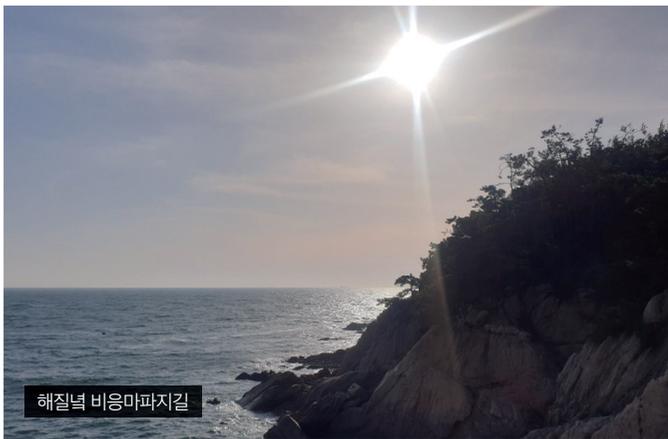
쥐똥섬



선유도 해수욕장



비응마파지길에서 바라본 바다



해질녘 비응마파지길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장자교 스카이워크 ▲선유도 명사십리 해수욕장 위를 가로지르는 스카이썬라인과 같은 아찔한 체험은 젊은 층에게 인기가 높다.

자연의 웅장함과 신비함을 느끼고 싶다면 ▲선유도와 장자도의 풍경이 한눈에 펼쳐지는 대장도 대장봉 ▲물때에 따라 바닷길이 열리면 건너갈 수 있는 무녀도 쥐똥섬 ▲독특한 지질구조와 함께하는 말도·명도·방축도 해상트레킹이 제격이다.

지난해에는 ‘고군산군도 자전거길’이 문체부와 관광공사가 추천하는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바다를 보며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자전거 여행 역시 고군산군도를 즐겨 보자.

서해의 고요한 아름다움, 비응마파지길

비응마파지길은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진 트레킹 코스로, 해안선을 따라 펼쳐지는 서해바다의 경관을 만끽할 수 있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은 바다의 파도 소리와 바람을 느끼며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이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

군산 시내에서 새만금북로를 따라 비응항 방향으로 가다보면 새만금비응공원 끝자락 주차장 부근에서 비응마파지길 안내

판을 볼 수 있다.

이곳에 주차를 하고, 사잇길을 따라 10분 정도 들어가면 넓은 바다와 해안을 따라 조성된 데크길이 눈앞에 그림같이 펼쳐진다.

뽀뽀뽀뽀뽀 비응마파지길에서 맞이하는 일몰은 서해안의 넓은 바다와 함께 붉게 물들어가는 하늘의 색이 환상적이다. 사진 촬영을 좋아한다면 해질 무렵에 방문해서, 바다 위로 비치는 석양의 아름다운 순간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



쥐똥섬 포토존



“다시, 히말라야”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 트레킹(2)

글 | 조창신 전북 산악연맹 전무이사·군산시 소상공인연합회 이사장
정리 | 김혜진 dhik0324@hanmail.net

누구나 갈 수 있어도,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이 바로 ‘히말라야’이다. 여행 중에 어딜갈든 가슴 벅차지 않은 곳이 있을까마는 이번 여행은 더욱 특별하다. 2024년 9월 11일 드디어 한국을 떠났다.

“한 번도 안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다” 라는 히말라야 트레킹. 이를 위한 여정은 몇년 동안 나를 몸살나게 했으며 지독한 열병을 앓게 만들었다.

랑탕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히말라야, 쿤부 히말라야 3개 지역으로 크게 나뉘어지는 신의 대지.

나는 2019년(10월 8일~19일) 청소년 지체 장애인 3명과 함께 안나푸르나 ABC(4,130m)트레킹을 다녀왔다. 이후 5년여 동안 꿈 속에서도 히말라야가 따라왔다.

항상 마음 속에 품고 지내왔던 그 곳, 다시 쿤부 히말라야 칼라파타르(5,560m)를 향한 여행의 시작되었다.

네팔의 카트만두에 다시 발을 내딛는 순간 잠잠했던 나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한다.

“반갑다! 히말라야!”



저만치서 달려 올 것 같은 산과 산을 보면서

**트레킹 4일(2024년 09월 15일)
남체~풍기텡가~텡보체~데보체**

“낭만 가도를 걷다”

남체에서 켄중사 가는 길은 낭만 가도로 불리는 길이라고 한다. 계곡따라 흐르는 강물이 천둥 소리다. 산 허리 휘감고 도는 비교적 평탄한 길. 깊은 협곡의 강 줄기에서 피어 오르는 안개 구름은 하늘을 향해 용오름을 한다.

아마다블람, 로체남벽, 출라체, 아우제, 로체, 아마다블람, 탐세루크, 캉데가 그리고 에베레스트까지 멋진 풍경은 구름 속에 갇혀 다 보지는 못했다.

그래도 우리에게 아직 많은 시간이 있다.

풍기텡가(3,250m)에서 점심을 먹고 에베레스트로 가는 두 번째 오르막의 시작이다.

두번째 고비인 셈이다...

어느 순간부터 세계 3대 미봉(마테호른, 아마다블람, 마차프차레) 중의 하나인 아마다블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트레킹 내내 이정표 같은 역할을 하게 될 아마다블람이 만년설로 우리에게 황홀감을 선사하고 있다.

5년 전 안나푸르나 트레킹에서는 마차푸차레가 그 역할을 하였었는데 기억이 새롭다.

길 곳곳마다 룬다, 타르초는 거친 바람에 휘날리며 히말라야 신들에게 그 소원을 전달하기 바쁘다.

신성한 산에는 사람들의 바람이 쌓여 있고, 히말라야 원주민들의 수많은 바람 위에 나의 소중한 바람 하나를 살포시 얹어 놓는다.

텡보체(3,860m)에 도착을 하고, 쿨부지역 가장 큰 티벳불교 사원

인 라마 성지의 큰 사원을 맞이했다. 사원 앞 롯지에서 따뜻한 밀크차 한 잔과 함께 잠시 쉬어 가기로 한다.

‘에베레스트’라는 영화에서 사람들이 사원 안으로 들어가 목에 천을 두르고 에베레스트 등반 성공과 안전을 기원하는 장면을 촬영한 곳이 바로 여기라고 한다.

내리는 빗방울에 바빠 서둘러 하루 목게 될 데보체(3,820m) 롯지에 9시간 만에 도착했다.



안개인지 비연인지 분간 못할 날씨



Galaxy S24
떨감으로 쓰이는 야크 배설물이 햇볕에 말라간다



이제 본격적으로 길을 떠나보자

트레킹 5일(2024년 09월 16일)

데보체~팡보체~딩보체

“히말라야의 평야”

고산 증세는 낮 보다는 기압이 떨어지는 밤에 더 고생을 한다. 찬 바람을 막아주고 따뜻하게 하는 것이 최고의 예방법이다. 우리 대원들의 몸 컨디션은 민기 어려울 만큼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데보체(3,820m)를 출발하여 계곡을 지나 팡보체(3,930m)에 들어서면 마을 입구부터 마니석이 길 가를 가득 메우고 있다.

셀파가 많이 나온 마을이라서 죽은 사람을 기리는 남은 사람들도 많아서일까. 성스러움이 가득하다.

칼라파타르(5,550m) 정상을 찍고 헬기로 카트만두까지 하산하게 될 팡보체에서 라면과 밥을 곁들인 점심 식사를 한다.

언제나 그랬듯이 음식을 담당하는 우리 쿡팀은 우리의 입맛에 놀라움을 주고있다. 오히려 체중이 몇 키로나 늘어난 기분이다.

고랩셉과 임자 빙하의 하단부가 만나는 거칠 것 없이 트인 고원에서 우리가 걷는 모습이 흡사 구도자의 행로를 보는듯 하다.

수천년 동안을 거쳐서 자연 스스로가 만들어낸 대자연의 풍광 앞에서 인간의 삶은 얼마나 찰나였던가.

구름 낀 히말의 자태는 웅장함이고 경이로움이다. 몽환적인 풍광 속에 굉음소리 내며 흐르는 함찬 물줄기가 히말의 어울림이었다.

8시간의 트레킹 끝에 딩보체(4,410m)에 도착했다. 또 다른 미지의 세계를 기약하며 트레킹 5일째를 마무리 한다.



평화로운 롯지의 저녁



아크와 함께 나도 걷는다



6일차인데 아직 생생하다

**트레킹 6일(2024년 09월 17일)
딩보체~투클라**

“히말라야에서의 추석 명절”

오늘은 추석날이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 밖을 보니 아마다블람이 코앞에 하얀 옷을 입고 우뚝 서있다.

“깜짝이야.”

어제는 구름에 가려 내심 아쉬웠는데, 우리가 하룻 밤을 머문 딩보체(4,410m) 롯지가 바로 세계 3대 미봉 중의 하나인 아마다블람 아래였다.

히말라야 4,410m 고원에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보이스톡으로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영상통화를 할 수 있다니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

우리 대원들도 이곳 히말라야 딩보체(4,410m) 롯지에서 간단한 차례상을 마련하여 차례를 지내기로 하였다.

차려진 차례상이 저법 그럴싸하다. 조상님들께 혹은 히말라야 신들께 저마다의 바람들을 기원하며 마음을 다잡아 본다.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히말라야 고산 족들의 일상을 잠시 기웃거리며 가벼운 산책으로 컨디션 유지를 한다.

오늘의 목적지 투클라(4,620m)까지 가는 내내 아마다블람이 등 뒤에서 배웅을 한다.

히말라야 평전 지역인 아크 목장을 지나 더보체, 졸라체



아찔한 다리

(6,300m) 봉우리가 우리를 맞이 할 때쯤 빙하 지역의 너덜 길 이 우리를 맞이 한다.

아쉬움이다. 세계적인 이상 기온의 현상이 이 곳 히말라야 까 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다행인 것은 아직까지 고소 증세로 고생하는 대원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가이드 마저 대단하다고 이야기 한다.

예상보다 일찍 도착하여 김치전을 안주삼아 히말라야 럽주 한 잔으로 투클라(4,620m)에서의 휴식을 즐긴다.

(다음 호에 계속)

중세미술 1. 초기 기독교미술

지난 회차 까지 '고대 로마 미술'을 마치고 시간의 흐름을 따라 중세 미술로 건너가 보려 한다.

중세 미술은 초기 기독교미술, 비잔틴 미술, 로마네스크 미술, 고딕 미술의 순서를 따라 변모하게 되는데 '초기 기독교미술'을 선두로 미술 역사를 따라가 보자.

중세 미술의 시작을 여는 '초기 기독교미술'은 고대 로마 후기와 맞물려 발현 하였다. 서로마 제국 멸망 시점은 고대와 중세를 나누는 시기가 된다.

이 시기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 통해 기독교는 국교로 정식 공인되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교회 건축이 시작 되었다. 중세 미술의 선두에 있는 '초기 기독교 미술'은 이렇게 첫발을 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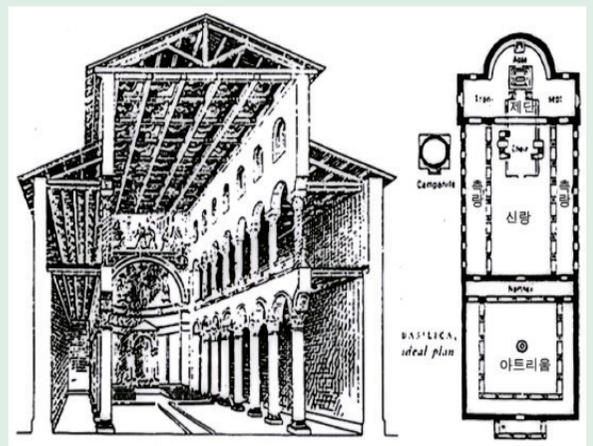
'밀라노 칙령'은 '기독교'라는 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 안에서 다뤄질 핵심 두가지중 첫 번째 로마는 기존과 완전히 다른 형태의 종교를 인정한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에 상응하며 나타난 또 다른 신전의 형태(교회 건축)의 출현이다. 이번에는 두 가지를 중심으로 전개하려 한다.

앞서 기고 했던 고대 미술 속에 녹아있던 이집트, 그리스, 로마 미술은 그야말로 품나는 모든 신의 집합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을 이어받은 중세 미술 역시 다양한 신들 속에서 신성과 인성을 복합체로 구성하며 미술의 전성기를 이뤄가고 있던 시점 이었다. 그런데 대신고 중심지인 곳에서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이 오직 유일신만을 섬기는 종교가 발현한 것이다. 로마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거친 박해를 피해 복잡한 지하 토굴을 만들어 칩거하게 된다. 이것을 '카타콤'이라고 불렀으며, 이는 거대한 무덤과도 같고 1~4세기에 걸쳐서 로마 변두리 지하에 건설 되었다.



◀로마 카타콤 내부 ▶선한목자 내부 벽화

이렇게 박해받던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을 통해 세상 밖으로 나와 종교의 자유를 누림과 동시에 지하에서 숨죽이던 예배 활동에 해방을 맞이한 것이다. 이 해방감은 예술과 접목되며 지상에서 맞이하는 예배 처소들은 고대의 건축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예술적 산물이 되어 꽃을 피우게 된다. 이 건축 예술에 영감을 실어준 것이 바로 '바실리카 형식'이다. 이는 초기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미술사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바실리카 형식

'바실리카'의 의미는 왕궁등의 건축물을 의미하는 단어로써 그리스어 '바실리케'에서 유래 하였다. '로마네스크 양식'에서 '고딕 양식'으로 이어지는 이 '바실리카 양식'은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바실리카는 고대 로마 시대에 공공 목적의 대규모 건물의 형태였다. 그곳에서는 대규모의 집회를 하거나 회의장, 상업 거래를 진행하기도 하였던 대화장 이었던 것이다. 특별하게는 왕의 접견실이 되거나, 재판을 진행하는 공간이 되는 장소이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바실리카'는 특정 건축 양식으로써의 의미 또는 종교적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바실리카'는 직사각형의 장방형으로 넓고, 천장이 높은 형태이다. 이 공간의 구조를 통해 보여주듯 바실리카는 예배의 장소로 사용하기에 적합 하였다. 회중이 모일 수 있는 공간과 신의 주목도를 높일 수 있는 구별된 공간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이다. 지붕을 지지하는 웅장한 기둥과 글라스의 형태를 통해 빛을 건축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고, 이러한 구조를 통해 신의 속성을 최적화한 것이다.



▲산 아폴리나레 누오보 교회
◀산 아폴리나레 인 클라세 ▶산비탈레

인물 표현 방법에 있어서는 고대 이집트의 인물과 같이 표정이나 개성이 드러나지 않고, 전체적인 동세와 모습이 동일함을 이루는 특징을 보여준다.

인물들의 중요도나 특징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나 마리아와 같이 주목도가 높은 상징적 인물들은 중앙에 위치하며 주변 인물들보다 크게 그려지는 고대 미술의 공통적인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초기 기독교 미술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의 또 하나는 양피지에 그린 성경 필사본인 '세밀화'이다. '양피지'는 고대 이집트 시대의 '파피루스'라는 식물의 줄기를 이용한 작업 방법보다 훨씬 견고하며 묘사하기에 부드럽고 좋았다.

이러한 양피지를 재료로 한 필사본 안에는 정성들여 그려진 '세밀화'들이 남겨졌다.

이렇듯 지하 토굴 '카타콤'에서 벗어난 로마 초기 기독교 미술은 중세, 르네상스, 근대에 이르기까지 서양 미술사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니 중세의 초기 기독교 미술은 주요한 지점인 것이다.

다음 회차로는 중세미술 파트의 두 번째 비잔틴 미술을 탐구할 예정이니 미술에 대하여 한땀을 떼어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배수정
서양화 작가
국립군산대학교 서양화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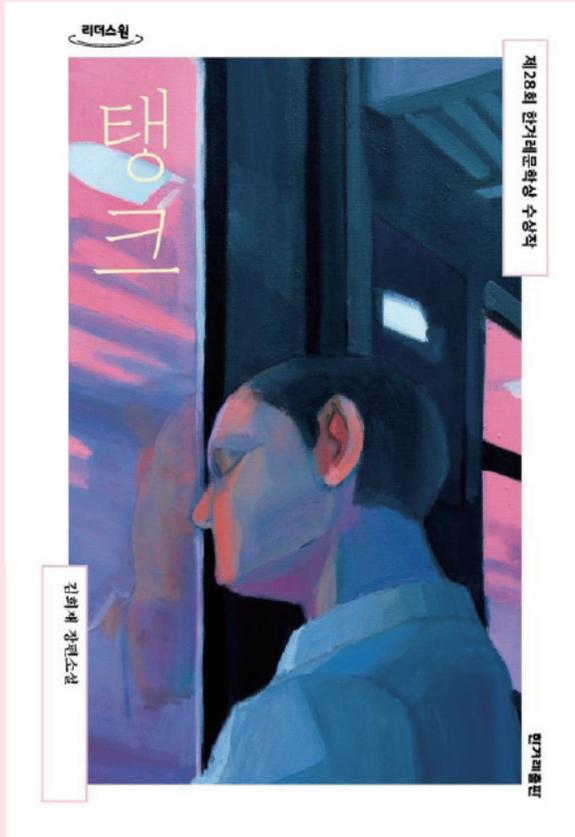
◀옛 성베드로 성당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
◀산조니인 라테라노 대성당 ▶산 파올로 푸오리 레 무라

예배의 공간 바실리카 건축 형태의 완벽한 표본으로는 '옛 성베드로 성당'이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에 세웠으며,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와 17세기 바로크 시대에 지금의 모습으로 재건축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옛 모습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바실리카 건축 내부의 공통점은 모자이크 장식으로 되어 있다. 등장하는 인물들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초현실적인 공간에 배치되고 있으며, 영원불멸과 변하지 않는 신의 거룩함을 반영하는 것과 같은 황금색 배경이 눈에 띈다.

지성(至誠)이면 감천(感天)?

김희재. <탱크>. 한겨레출판. 2023.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독서 칼럼 대상으로 소환하고자 하는 김희재의 <탱크>는 문제적인 작품이 아닐 수 없다. 이 작품에서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서사의 중심에 전경화되기 때문이다.

제28회 한겨레문학상(2023) 수상작인 이 작품은 최종심 30분 만에 심사위원 만장일치 수상작으로 결정될 정도로 화제가 되었던 장편이다. 대학에서 영화를 전공하면서 시나리오를 써본 경험의 소유자였던 작가의 인장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속도감 있는 문체와 빠른 장면 전환이 독서의 몰입도를 높이는 이 작품에 대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흡인력 있게 ‘진격’”(277면)한다는 지적은 정곡을 꿰는 통찰이 아닐 수 없다. “텅 빈 믿음에 관한 작품, 도저히 믿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간적 안간힘에 대한 소설”, “신 없는 시대의 종교 소설”(276-277면)이라는 심사위원들의 지적처럼, 이 소설은 한마디로 ‘절망의 나락에서 기적을 간구하는 사람들의 분투나 고투의 서사로 규정할 수 있다. 더불어 ‘낭만적 가족 신화’ 또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대한 불편한 질문을 자극하는 서사이기도 하다.

이 작품에서 ‘핵 사건’으로 기능하는 모티프는 황영경의 탱크 설치이다. 그 발단은 고등학교 졸업 직후 기계 설비 및 자동차제어 부품을 수출하는 대구 소재(所在)의 외국계 중소기업의 경리로 일하는 황영경이 미국 출장에서 본사의 관리자로 일하는 루벤을 만나게 되는 데서 출발한다. 그로부터 3년 후 황영경이 근무하는 지사의 감사를 위해 루벤이 한국에 출장을 오면서 탱크 설치는 성사된다. 구체적으로 당시 번아웃 상태에 놓여있던 황영경은 “그 공간을 믿는 순간부터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게 되고 그 때부터는 무엇이든 가능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어떤 세계에든 속할 수 있고 어떤 세계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65면)는 루벤의 말에 대한 주술적 믿음과 희망에서 김제의 아산에 탱크를 설치하게 된다.

이 작품에서 서사의 핵심 축으로 기능하는 탱크는 “울창한 산 속에 자리 잡은 직육면체의 컨테이너”(24면)에 불과하다. 교주나 교리도 없는데다 한적한 시골 마을의 아산에 세워진 5평 남짓의 텅 빈 공간에 불과한 탱크는 “종교도 아니고 작정하고 사람을 홀리는 사이비도 아니고 딱히 자기 계발도 아닌, 그야말로 뭇도 아닌 자율적 기도 시스템”(50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살다 보면 저절로 초월적인 존재에 간절하게 매달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종교의 유무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렇다. 그러한 생각이 들 때는 언제일까? 건곤일척의 승부수를 던져야 할 정도로 중요한 절체절명의 상황 또는 백척간두의 벼랑 끝이나 막다른 골목에 내몰리는 위급한 상황에서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에 빠져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절박한 심정이 되어 자기 의사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절대적인 존재에 매달리게 된다. 그것도 아주 갈급하게. 물론 그러한 상황에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이 믿는 신에 의존할 것이다. 그러나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종교를 불신하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까? 무언가 기적을 바라는 갈급한 심정이 되어, 그리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옛말에 기대어 초월적인 비나 영험이 있다고 믿고 싶어하는 대상에게 절박하게 매달리게 되지 않을까

설치 이후 황영경은 탱크를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탱크의 세기'라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개설한 다음 거듭되는 임용 시험 실패 후 종합학원 강사로 일하던 이부동생 손부경에게 커뮤니티의 예약 매니저 역할을 맡긴다.

한편 이 작품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다. 탱크와 관련된 인물들이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다른 아닌, 그 인물들이 한결같이 가족과 관련된 상처와 결핍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에게 가족과 관련된 상처와 결핍은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다.

먼저 “엉뚱하지만 동시에 번쩍이는 아이디어로 가득 찬 영리한 아이”(60면)였던 루벤은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이후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입양아이다. 입양 이후 미국에서 철저한 이방인으로 소외와 차별을 일상으로 경험하던 루벤은 방 안에 틀어박혀 책만 읽는 아이로 성장한다. 그 과정에서 루벤은 “의식의 변화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요지의 세계관”(61면)으로 압축할 수 있는 책을 한 권 발견한 후 그 세계관을 현실 세계에 실현할 수 있는 방법에 강박적으로 매달리다가 고안해 낸 것이 바로 탱크이다. 빈 컨테이너를 기도실로 개조한 이후 그 안에 그 책을 비치한 루벤은 그곳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 책을 읽고 명상하거나 기도를 하게 한다. 육아에 지친 서른 한 살의 실라가 기적을 경험하면서 컨테이너의 영향력과 세력권은 확대·확장된다. 황영경과의 인연으로 인해 그 영향력은 한국으로까지 확장되기에 이른다.

탱크의 한국 개설 책임자인 황영경은, 이혼 후 도박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빚 때문에 자살로 생을 마감한 아버지를 둔 불행한 가족사를 지니고 있다. '탱크의 세기' 예약 매니저인 손부경과는 열한 살 터울의 이부자매이다. 그러니까 손부경은 황영경의 어머니가 재혼 후 낳은 딸이다.

탱크에서 뚝뚝의 시체를 발견한 후 경찰에 신고한 탱크의 이용자인 도선의 경우 또한 불행한 가족사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가정폭력이 일상으로 자행되던 성장 배경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시나리오 작가로 입문한 후 극심한 슬럼프를 겪던 도선은 한국에서 토익 학원 강사로 생활하던 제임스와 부부의 인연을 맺어 캐나다로 이주한다. 이후 이혼을 강요당한 도선은 딸 로사의 양육권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10년 동안의 캐나다 생활을 정리한 후 귀국한다. 이후 한국에서 영어 학원 강사로 일하던 도선은 동료의 소개로 탱크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에서 중요한 초점인물로 기능하는 두 사람인 양우와 뚝뚝 또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공장 노동자로 일하는 양우는 19살에 마지막 가족이던 할머니마저 여린 천애고아의 동성애자이다. 탱크 안에서 자살로 짧은 생애를 마감하는 대학생 뚝뚝 또한 동성애자이다. 두 사람이 인연을 맺게 되는 계기는 양우가 익명의 회원들과 채팅을 하면서 영화를 볼 수 있는

OTT 플랫폼에 가입하면서부터이다. 동성애자의 성별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는 두 사람은, 커밍 아웃한 이후 절대적인 지지자 역할을 기대했던 부모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한 뚝뚝이 집과 양우의 집에서 같이 생활하게 되면서부터 급속도로 가까워진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항상 그리고 언제까지나 좋으란 법은 없기 마련. 사소한 말다툼이 빌미가 되어 뚝뚝은 양우의 집을 나가게 된 후 힘들고 지칠 때마다 찾던 탱크 안에서 짧은 생애를 마감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들이 한적한 시골 마을의 야산에 세워진 5평 남짓의 텅 빈 공간에 불과한 탱크에 그렇게까지 절박하게 매달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탱크는 단순히 기도를 하는 장소가 아니라 기적을 이뤄주는 장소였다”(100면)는 뚝뚝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그것은 탱크에서의 간절한 기도가 필사적인 노력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자신들의 기적과도 같은 소망을 이루어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자살로 짧은 생을 마감하는 뚝뚝이 가족에게 간절하게 원한 것은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뚝뚝의 입장에서 보자면 어찌면 지극히 당연한, 그런 점에서 정당한 권리에 가까운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뚝뚝이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목숨과 대체할 정도로 간절하게 원했던 것은, 자신의 의지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결정되어 버린, 그런 점에서 부조리하기 그지없는 “가족을 되찾는 것, 뚝뚝의 부모님이 뚝뚝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101면)이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동성애자로서의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부모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혐오하고 차별하더라도 두 사람만큼은 절대 예외일 거라고 믿었던, 아니 믿고 싶었던,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던 마지막 보루라고 기대했던 부모들에게서마저도 자신의 그러한 바람이 무참하게 좌절되어 벼랑 끝에 몰린 뚝뚝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다.

자기 동일성의 시간을 스스로 완전 차단해버리는 자살을 결행하는 직전까지 구원을 기대하던 뚝뚝이 “자기표현이자 자기행위 양식의 하나”(천정환, <자살론>, 문학동네, 2013, 26면)인 자살을 결행하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이다.

흔히 가족은 냉혹한 세상 속의 온갖 세파를 막아주거나 피해갈 수 있는 마지막 천국으로까지 낭만화되곤 한다. 과연 가족은 그러기만 한 근대적인 제도나 공간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오히려 가족은, 뚝뚝을 비롯한 루벤, 황영경과 손부경, 도선과 양우 등의 경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불행과 상처 그리고 소외의 기원으로 기능하는 폭력적인 제도나 공간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불편한 질문으로 이 글을 매조지 고자 한다.



공종우
국립군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직원과 함께 밥 먹는 사장이 되라. 더욱 방약무인(傍若無人) 해지기 전에

'갑질'이라는 말이 몇 년 전부터 우리 사회의 절대악의 대명사로 불리기 시작했다. 자신이 가진 권위로 상대적으로 가진 것이 없는 이들에게 해를 가하는 '갑질'은 우리 사회를 좀먹게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외식업종에도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는 사장을 더러 볼 수 있다. 직원과의 수평적 관계가 아닌 폭포 같은 수직적 관계를 고집하는 이들은 이 시대의 흐름에 분명 부합하지 못하는 이라고 할 수 있다.

사기의 자객열전에 방약무인(傍若無人)이라는 사자성어가 나온다. 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여긴다는 뜻으로,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사기 속 내용에 따르면 위나라 사람인 형가(荊軻)는 성격이 침착하고 생각이 깊으며, 문학과 무예에 능했고, 애주가였다. 그는 정치에 관심이 많아 위나라의 원군에게 국정에 대한 자신의 포부와 건의를 피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연나라 및 여러 나라를 떠돌아 다니며 현인과 호걸과 사귀기를 즐겼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연나라에서 사권 비파(琵琶)의 명수인 고점리인데 이 두 사람은 호흡이 잘 맞아 금방 친한 사이가 되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 술판을 일단 벌여 취기가 돌면, 고점리는 비파를 켜고, 형가는 이에 맞추어 춤을 추며 고성 방가했다. 그러다가 신세가 처량함을 서로 느껴 감정이 북받으면 돌이 얼싸안고 울기도 웃기도 했다. 이때 이 모습은 마치 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방약무인해 보였다. 원래 방약무인은 아무 거리낌없이 당당한 태도를 말했는데 나중에 뜻이 변해서 천방지축으로 날뛰고, 무례하거나 교만한 태도를 표현할 때 인용된다.

주위의 외식업을 운영하는 대표 중 직원과 겸상을 안 하는 이가 있다.

그는 직원을 그저 일 하는 기계로 여기며 그들과의 식사에 전혀 무심했다. 그 결과 그 식당은 채 몇 개월이 되지 않아 직원들이 속속 그만뒀고, 여전히 그는 직원을 없애지면 채워 넣는 부속으로 생각하고 있다. 직원들과 밥 한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가 알았다면 그런 오만한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한국인들은 정을 쌓을 때 하는 특유의 행동들이 있다. 술을 마시거나 도움을 주거나 혹은 밥을 같이 먹거나 밥을 같이 먹는 정은 유독 돈독하다. 밥을 먹으며 일 하느라 못했던 대화를 하게 되고 그 사람이 무엇을 잘 먹는지 체크하며 다음 밥상에도 참고 할 수 있다. 그렇게 같이 밥을 먹는 행위는 서로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좋은 기회인 것이다.

직원을 수직적이 아닌 수평적으로 대하는 대표들은 암암리에 식당의 분위기까지 바꾼다. 직원을 가족같이 대하고 살갑게 대하면 그 모습은 고스란히 손님들에게 노출된다. 밥 한끼 같이 안 먹는 식당의 분위기는 경직돼 있으며 그것 역시 손님들이 재빨리 눈치 챌 수밖에 없다. 애석하게도 대한민국에 맛집이라 평가받는 곳 중 홀의 경직된 분위기로 인해 초반의 명성을 이어가지 못하고 손님들의 불만을 받는 곳이 많다.

버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식당의 사장 역시 직원에게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한다. 돈 버는 것이 중요하다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식당을 위해 일을 해주는 직원들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다.

버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식당의 사장 역시 직원에게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한다. 돈 버는 것이 중요하다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식당을 위해 일을 해주는 직원들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다. 속내를 내색하기 싫고 어색한 식당 주인이라면 일단, 밥 한끼 함께 먹는 것으로 시작해보라. 그 안에서 조그마한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김철호
식품의약학 이학박사, 대한민국명인
수산신지식인, 내고향씨푸드 운영

남천의 추억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남천 꽃봉오리, 단풍 든 남천 잎, 남천 붉은 열매, 남천 노란 열매

어느날 물을 한 컵 마시려는데 동료가 물컵에 띄워 준 꽃봉오리가 있었어. 옛날에 우물가에서 물도 급하게 마시면 체한다고 상대방 바가지에 꽃을 띄워준 것처럼 말이야. 내가 받아든 물컵의 흰 꽃봉오리는 남천 꽃봉오리였어. 예쁘기도 하고 이런 여유를 보여줄 줄 아는 동료가 반갑기도 했어. 한바탕 웃다가 꽃봉오리를 만져보았지. 그 순간 내 눈은 휘둥그레졌단다. 대개의 꽃봉오리는 여리고 부드러운잖아. 그런데 남천 꽃봉오리는 마치 쌀알 같았어. 봉오리 크기도 쌀알만 하고 단단하기도 마찬가지로 있었지. 아마 동료가 내게 남천 꽃봉오리를 물에 띄워주지 않았다면 오랫동안 모르고 지냈겠구나 싶었어.

남천. 많이 본 나무지?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워서 참 좋아하는 나무란다. 정원수로도 제격이야. 화분에 심어도 노지에 심어도 본연의 당당함을 잃지 않는 나무란다. 그건 남천이 가진 생명력 때문이지. 어디서든 두려움 없이 나는 잘 살아내야겠다 하고 내공을 지닌 나무 같아. 특히 겨울에 단풍 빛깔을 지닌 채 잎이 지지도 않고 흑한에도 의연히 버티고 있는 걸 볼 때마다 참 고마운 나무라는 생각

이 든단다. 초겨울에 남천 잎 가장자리에 서리가 낀 모습도 남천만이 가질 수 있는 매력이야. 열매도 노란색, 흰색, 붉은색으로 다양하지. 대나무를 닮았다고는 하지만 대나무의 친척은 아니야. 일본에서는 남천을 어려움 끝에 복을 가져오는 식물이라고 생각하고 해. 게다가 남천은 그리 크게 자라지 않으니 작은 나무부터 자라는 모습을 보며 가뉘볼만하단다. 올해는 꼭 남천 꽃봉오리를 만져보았으면 좋겠다. 복을 가져오는 식물이라니 반갑지 않을 리 없지.



신재순 시인 /
시인/ 한국아동문학회, 전북작가회의 회원
문 밖에서 만나는 나무와 풀, 곤충을 사진에 담고 이야기한다.

‘제일고~종합운동장’ 금강터널 보수보강공사 실시

터널 상부 배수 지장·누수에 따른 복구
오는 6월까지 공사 실시...교통 통제



장과 누수로 발생한 콘크리트 파손 부분에 대한 철거 및 복구와 배수로 개선 및 방수 처리 계획이다.

그러나 공사를 위해 터널 상부 슬래브 일부의 철거 및 보강에 따른 낙하물 유실 방지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한 가시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는 터널 내부 상행, 하행 2차로씩 부분 통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설치기간은 2월 17일부터 22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보수보강공사 기간 내에는 가시시설 철물 지장 등에 따라 터널 내부에서의 차선변경을 금지하는 안전 시설물도 설치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양해를 구했다.

군산시는 제일고~종합운동장을 연결하는 경기장로에 위치한 금강터널의 파손 부분의 안전 보수를 위해 2월 17일부터 오는 6월까지 7억원의 예산을 들여 보수보강공사를 추진한다.

문 상단에서 콘크리트 균열 및 탈락 등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했으며, 정밀 안전 진단용역을 거친 뒤 보수보강계획을 수립해 사업에 착수했다.

군산시는 작년 4월경 금강터널 남측 갱

사업의 주요 내용은 터널 상부의 배수 지

지자체-지역 대학, 교육 위해 손 잡는다

지역 혁신 성공 위해 지역대학과 소통 나서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E)' 연계



군산시가 지난 2월 11일 대학과 함께 학령인구 감소, 지방대 위기 등 지역 교육 현안의 해결책을 적극 모색하기 위해 '라이즈(RISE) 동행 협력 지역발전 프로젝트 협업회의'를 개최했다.

라이즈(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는 영어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의 앞자리를 딴 용어로, 대학의 지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한 대학지원을 실시하고자 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뜻한다.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 체계로, 대학이 지역 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대학을 지원하는 교

육부의 정책이다.

회의는 군산시 라이즈 제안사업 담당자 20여 명과 군산대학교 교수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 논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가운데 지역 혁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과 연계 가능한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됐으며, 새만금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전략, 지역 맞춤형 고용분석 및 일자리 지원, 이차전지 실무인력 양성 등 다양한 의제가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군산시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토대로 대학과 지역이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구체화할 계획이다.

박홍순 군산시 교육지원과장은 "라이즈 사업은 대학의 역량과 지역자원을 융합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대학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대학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학지원의 행정적 권한을 광역 지자체에 위임 및 이양해 지역 발전을 추진하는 체계로 올해부터 시행된다.

군산시 인구감소 추세 ‘다소 완화’

2024년 12월 기준 25만8,047명 1년간 1,933명 감소
출생아 수 1,000명·사망자 수 2,372명



2024년 군산시 인구감소 추세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2월 기준, 군산시 주민등록 인구는 지난 1년간 1,933명이 감소한 25만 8,047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결과는 군산시의 2024년도 인구 현황을 통해 분석됐다.

군산시는 2016년 이후 매년 2,000명 이상 인구가 감소해왔다. 그러나, 2024년에는 감소 폭이 2,000명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2,487명 감소에 비해 22.3% 완화된 수치다.

2024년 월별 인구감소 현황을 세부적으

로 살펴보면, 3월이 354명으로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2월이 312명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월 68명, 7월 79명, 10월 40명, 11월 49명 등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한 달도 있었다.

자연 증감 부분에서는 2023년 동월 대비 출생 983명, 사망자 수 2,263명이었던데 비해 2024년 출생아 수 1,000명 (17명 증가), 사망자 수는 2,372명 (109명 증가)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도 늘었지만, 고령인구가 많은 특성상 사망자 수도 다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증감 부분에서는 2024년 전입 1만2,782명, 전출 1만3,344명으로 순 유출인원은 562명으로 작년 1,222명 대비 660명이 줄어들었다. 주된 전출입 사유는 교육(▲713명)>직업(▲398명)>주택(▲94명) 순으로 파악됐다.

연령대별 구성 비율은 50대가 17.7%로 가장 높았고, 60대(16.2%), 70대 이상(15.3%), 40대(15.2%), 30대(10.1%), 20대(9.83%), 10대(9.84%), 10대 미만(5.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인구(65세 이상)가 전체 인구의 23.0%로 전년 대비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소년 인구(0~14세)는 10.9%로 전년 대비 0.4% 감소했으며, 청년인구(18~39세) 역시 0.5% 줄어든 21.7%로 파악됐다.

읍면동별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구암동과 수송동은 인구가 증가하였으나, 그 외 25개 읍면동 모두 인구가 감소했다. 이는 대규모 신규 아파트 입주 등에 따른 사유로 보인다.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인구증감률에서는 군산시가 14개 시군 중 -0.74%를 기록해 세 번째로 인구감소율이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영세소상공인 임대료·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군산시, 임대료 해당 업체 30만원 지원
카드수수료 24년 카드매출액 0.5%, 최대 50만원 지원



군산시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시는 2월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및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은 지속되는 고금리와 내수 침체로 인한 매출 부진과 비용 부담 확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신규 사업이다.

기존 사업인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도 작년보다 지원금액을 20만 원 늘려 시행할 계획이다.

2025년 총 사업비 24억 원 규모의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은 2023년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0만 원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전년도(2024년)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전년도(2024년) 카드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카드수수료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5년 총사업비는 16억 5,500만 원이다.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1인당 최대 2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하며, 임대료 지원사업은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하다.

단, 공고일인 2025년 2월 5일 이전 휴·폐업 혹은 타 시·도로 이전한 경우나 유형업소, 도박 등 신용보증재단 제한업종 및 정책자금 제외업종에 해당되는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2월 10일부터 군산시상공권활성화재단 누리집에 접속(군산시청 누리집 접속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받으며,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신청 첫 주는 혼잡을 피하고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2월 10일에는 끝자리 3·8 ▲11일에는 4·9 ▲12일에는 0·5 ▲13일에는 1·6d에 진행했으며, 14일에는 2·7이다. 15일부터는 5부제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및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통해 경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및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시청 일자리경제과(063-454-2680)으로 전화하면 된다.

군산시청
군산시 시청로 17
www.gunsan.go.kr

서수농공단지 에너지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준공

28개 기업, 연 2억원 에너지 절감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3월부터 시범운영 시작



에너지 자립화와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을 위한 군산 농공단지형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3월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농공단지형 에너지 관리 시스템 기술도입 모델’ 사업은 2023년 농식품부가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 사업에 선정된 군산시는 노후된 서수농공단지 에너지 관리 시스템 정비에 나섰다.

서수농공단지는 착공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 농공단지이자 식료품 분야에 전기 및 가스 에너지 사용 비중이 높았다. 시는 2024년까지 24억 5,000만 원을 투자해

사업을 완료했다.

이후 2025년 3월까지 시스템을 시범운영 후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시스템 본격 가동 후에는 서수농공단지 28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진단을 통해 절감 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통한 분산 전원 구축 및 에너지 절감 전력 제어장치를 통해 연간 총 7%의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이번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연간 에너지사용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 에너지 사용 절감을 통해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서수농공단지는 군산시 농공단지 중 가장 규모가 큰 산업단지로 농공단지형 에너지 관리 시스템 기술도입 사업을 통한 에너지 절감으로 농공단지 활성화와 친환경 가치를 높이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군산문화관광재단 ‘꿈의 오케스트라’ 선정

꼼꼼한 심사 통해 신규 거점기관으로
2027년까지 국비 최대 8억 1,000만원 확보



군산문화관광재단(이사장 강임준, 이하 재단)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박은실)에서 주관하는 2024 꿈의 오케스트라 예비 거점기관 선정에 이어 2025 꿈의 오케스트라 신규 거점기관에 최종 선정됐다.

꿈의 오케스트라 신규 거점기관은 지난해 예비 거점기관 선정 이후 인큐베이팅 기간을 거쳐 신규 거점기관 전환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되었으며, 군산문화관광재단을 포함 영등포문화재단, 은평문화재단, 인천서구문화재단, 제천문화재단 총 5개 기관이 선정됐다.

이번 신규 거점기관 최종 선정으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국비 3억 원

에서 최대 5억 4,000만 원,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1억 8,000만 원에서 최대 2억 7,000만 원을 지원받아 최대 8억 1,0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된다.

재단은 앞으로 6년간 국비 지원을 받아 60여 명의 단원을 선정, 오케스트라를 구성하여 정기교육, 정기 연주회, 음악캠프 등 다양한 오케스트라 활동을 운영할 방침이다.

강임준 군산문화재단 이사장은 “꿈의 오케스트라 군산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 군산의 아동·청소년들이 엘 시스템아 교육을 통해 일상 속 즐거움과 가치를 발견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은 베네수엘라 무상 음악교육 프로그램 ‘엘 시스템아’에서 영감을 받아 지역사회 아동·청소년들이 음악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 8개 지역으로 시작하여 현재 전국 49개, 2,800여 명의 단원이 활동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문화관광재단 문화관광사업팀(063-443-4804 / chanyeol@gunsan.or.kr)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예술의전당
군산시 백토로 203
www.gunsan.go.kr/arts/

새만금개발청, 비응2·3 변전소 추가 전력 공급

새만금 국가산단 배후 용지 내 100만평 이상
제2산단 신규 조성 계획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배후 용지에 100만평 이상의 제2산단을 신규 조성한다.

입주 기업에 전력과 용수 등을 적기에 공급하고자 관련 시설도 앞당겨 짓기로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달 23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계획은 ▲핵심 성장거점 육성 ▲성장 기반 구축 ▲기업 맞춤형 투자 환경 조성 ▲지속 가능한 개발 등 4가지로 나뉜다고 밝혔다.

먼저, 현재 조성하고 있는 새만금 국가산단 3, 7, 8공구의 분양 시기를 기존 계획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 올해 상반기부터 기업에 분양하고,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 약 20만평의 산업용지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산단 배후 용지에 100만평 이상의 산업용지를 조성, 제2산단으로 개발한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도 조성한다.

전력 사용량이 많은 기업을 위해 비응2, 비응3 변전소를 2026년까지 완공하고 전력 개폐소, 배전 선로 공사도 착수한다. 이차전지 기업 맞춤형 용수 공급 관로와 방류 관로 공사, 재생에너지 발전·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 분석할 수 있는 통합 관제센터도 들어선다.

아울러 기업의 인력 수급, 복잡한 인허가를 돕는 원스톱 지원센터를 '기업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빠르게 해결할 방침이다.

새만금 산단의 친환경적 개발을 도모하고자 새만금호 안에 방치된 어구를 제거하는 등 공유수면 관리에도 힘쓰기로 했다.

김경안 청장은 "새만금은 하루게 다르게 발전, 변화하고 있다"며 "기업 유치를 통해 새만금의 성장을 이어가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구암동 “따뜻한 한 끼를 전달해드려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밑반찬 지원 사업
1인 가구 고독사·결식 예방 나서



구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송영애·최광식)는 지난달 24일 1인 가구를 위해 사랑가득 밑반찬을 만들어 전달했다.

구암동행정복지센터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관내 결식 우려 저소득층 1인 가구 40세대에 밑반찬을 전달하는 ‘2025년 사랑가득 밑반찬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혼자서 균형잡힌 식사 해결이 어려운 소외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가구 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밑반찬은 ‘착한가게 29호점’으로 새롭게 가입한 ‘만나반찬’과 계약을 맺고 매월 1회 정성을 담은 밑반찬 5종(국, 반찬 4종)을 정기적으로 전달하는 사업으로 구암

동 지정기탁 후원금으로 추진된다.

밑반찬 전달은 각 통장이 직접 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반찬을 전달함으로써 결식 위기에 처한 대상자들에게 음식 제공뿐 아니라 안부 확인과 따뜻한 정서적 지원을 전할 계획이다.

밑반찬 꾸러미를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혼자 물 말아서 김치만 놓고 먹거나 라면으로 대충 끼니를 때웠는데 이렇게 따뜻하고 맛있는 반찬을 직접 가져다주셔서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송영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정성 가득한 반찬 나눔으로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자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관내 소외계층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밝혔다.

최광식 구암동장은 “이번 사업은 결식 예방뿐 아니라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독사라는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협력하여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군산시 방문

군산시의 역점·주요현안 업무보고
시민 500여 명이 참여한 도민과의 대화 참여



민생현장에서 민심을 듣고, 도정의 답을 찾기 위해 시군 방문길에 오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그의 고향인 군산시를 지난 4일 방문했다.

지난 2월 3일 전주시를 시작으로, 세 번째 방문지로 군산을 찾은 김 지사는 군산시의 역점·주요현안 업무보고를 통해 지역의 분위기와 여론을 경청했다.

이후 시청 대강당으로 자리를 옮겨, 시민 500여 명이 참여한 도민과의 대화에서 '도전경성의 초심, 도민약속의 실천 초지일관'이라는 주제로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한 특강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특히 군산시는 이번 도민과의 대화에 지역 핵심 현안인, 군산항-군산새만금 신항

원포트(One-Port) 지정 관련 내용을 도에 건의하였다.

질의자로 나선 군산시의회 서은식 의원은 "자문위원회에서 새만금신항을 군산항과 원포트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는 결론을 낸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에 이어 "전북특별자치도는 자문위원회의 결과를 해수부 추가요청 없이 자체적으로 제출할 계획이 있는지와 공개할 계획이 있다면 공개 시점이 언제인지 명확히 밝혀 달라."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김관영 도지사는 "지금 현재 새만금 신항이 관할권 분쟁의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훗날 분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원포트, 투포트가 군산시와 김제시의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무역항 지정을 위한 중앙항만정책심의회가 개시되면 시기에 맞춰 자문위원회에 결과를 보내겠다."라고 답변했다.

질의응답을 마친 김관영 도지사는 "군산 시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었던 이번 방문에서 많은 걸 배우고 간다."라며, "민선 8기 3년 차에 전북의 더 큰 도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참여와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임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웃 사랑 실천

“작은 손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도움으로” 설 명절 어려운 이웃 50세대 소고기세트 전달



임피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최금자, 김대권·이하 임피면 지사협)가 지난달 22일 설 명절을 맞아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임피면 지사협은 어려운 이웃 50세대에 한우 소고기세트 꾸러미(10만원 상당)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전북공동모금회 임피면 지정기탁금 500만 원 예산으로 진행됐으며, 마을마다 명절에 홀로 지내는 취약세대 50가구를 선정해 지원했다.

임피면 지사협 위원들과 마을 이장들은 직접 선물을 들고, 대상 가구를 방문해 명절 인사를 나누는 등 훈훈한 만남의 순간을 가졌다.

설 명절 꾸러미를 받은 대상자는 “찾아오는 가족도 없이 외로운 명절을 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챙겨줘서 감사하고 설명절을 따뜻하고 풍족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대권 민간위원장은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명절 분위기가 전달됐길 바란다”며 “작은 손길이 어려운 이웃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임피면 관계자는 “명절에 더욱 외로울 수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준 임피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사랑

의 온기가 곳곳에 퍼지는 따뜻한 임피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임피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설명절 꾸러미 지원사업에 이어 2025년 상반기에 찾아가는 밑반찬 지원사업, 유산균 음료 지원사업, 어버이날 효나눔 지원사업 등의 지역 특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산사이버평생학습관, 다채로운 강좌 운영

외국어, 자격증, 법정교육 등 814개 강좌 '사회적 인식 개선' 위한 법정의무교육과정 신설



군산시는 시민들의 평생학습 생활화를 위해 1월 24일부터 군산시 사이버평생학습관 온라인 강좌를 운영한다.

온라인 강좌는 군산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학습자가 원하는 강좌를 시간, 장소에 제약 없이 pc 및 모바일로 수강할 수 있다.

올해 교육과정은 외국어, 자격증, IT/컴퓨터, 법정의무교육, 취업/재테크, 취미교양, 건강생활 등 9개 과정, 814개 강좌이다.

특히, 새롭게 신설한 법정의무교육 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한 사회적 인식개

선을 꺾었으며, 어린이 영어 및 취창업 관련 강좌를 신설하여 다양한 연령대 시민들의 수강 기회를 확대했다.

수강 신청 방법은 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www.gunsan.go.kr)에서 회원가입 후 메인화면에 '사이버평생학습관 바로가기(cyberedu.gunsan.go.kr)' 또는 군산시 사이버평생학습관을 검색하여 접속하면 된다.

군산시사이버평생학습관은 시민들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즐길 수 있는 평생학습 온라인 서비스다.

군산시는 시민의 학습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박홍순 교육지원과장은 “다양한 평생교육 제공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고 평생학습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올해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에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www.gunsan.go.kr)을 참고하거나, 군산시청 교육지원과 평생교육계(063-454-2607)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시청
군산시 시청로 17
www.gunsan.go.kr

군산시, 골목형 상점가 3곳 지정

나운상가·동백로나운상가·디오션시티 G플레이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는 다양한 혜택 제공



군산시가 지역내 주요 상점가 3곳을 첫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해당하지 않는 골목상권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곳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는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이다.

군산시는 지난달 21일 열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3곳을 지정했으며, 해당 상점가는 ▲ 나운상가(신풍초등학교 옆 ~ 나운지구대 앞) ▲ 디오션시티 G플레이스(조촌동 디오션시티 e편한세상 2차 아파트 앞 건물) ▲ 동백로 나운상가(나운동 차병원 인근 상가)이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는 혜택과 함께 다양

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나운상가(사진)와 동백로 나운상가 골목형 상점가는 상권이동으로 인해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촌동 디오션시티 G플레이스 골목형 상점가는 인근에 아파트가 많은 구역으로 지역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임준 시장은 “군산의 첫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원도심과 더불어 신도시가 상생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지속가능한 상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해 10월 관내 상인협 의체를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1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전북중소벤처기업청 청장이 군산시를 직접 방문하여 골목상권 활력 회복 방안의 하나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를 논의한 바 있다.



전북 최초 이명치료기 'ALTMS' 도입



전 경 호 JKH ENT Clinic
이비인후과

전북 군산시 공단대로 252 2-3층 T: 063-471-5575

군산과 새만금 지역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아내려는 매거진 군산·새만금을 위하여 보내주신 격려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매거진 군산·새만금에서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독자 관리를 위하여 CMS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작성해주신 이 신청서는 군산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신청서 작성 후

- 1. 권유하신 분께 직접 전달 2. 팩스로 송부 (063) 442-3883
3. 사진 찍어서 이메일 newgunsanews@naver.com

이런 방법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출금이체서

수납기관 및 요금종류

·수납기관명 : 문화관광 사람과 길(매거진 군산) ·대표자 : 채명룡 ·사업자등록번호 : 241-43-01344
·사업장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절골3길 16-2(신흥동) ·수납 요금종류 : 구독료 납부

- 매거진 군산·새만금 구독 (7,000원/월)
□ 새군산신문 + 매거진군산·새만금 구독 (10,000원/월)

■ 구독받으실 주소

[Empty box for subscription address]

·출금계좌 예금주명_ ·금융기관명_
·출금 계좌번호_
·예금주 생년월일_ 계좌 예금주가 사업자일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예금주 연락처(휴대전화)_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경우
·신청인명_ ·예금주와의 관계_
·신청인 연락처(휴대전화)_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수납
-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등록 및 해지 사실 통지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휴대폰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 통지 안내

은행 등 금융회사 및 금융결제원은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세지, 유선 등으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CMS 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 (인 또는 서명)



족발야시장 군산미장점

맛있는 재료로 만든 졕발의 명가

대표 전재용

군산시 미장1길 38 102, 103호

TEL: 063-453-49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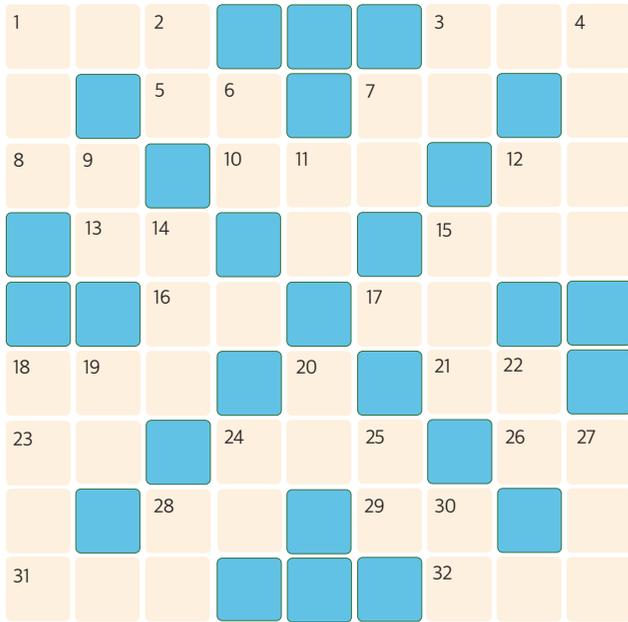
국내 1위를 넘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특수강 전문 기업-세아베스틸
이제, 세계 최고의 특수강 메이커로서 다시 태어납니다.

Born to be Special

즐거운 크로스워드 퍼즐

162



<161호 해답>

정답 (이름, 연락처, 주소)을 매거진군산 새만금에 보내주세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에이브호텔 썬데이 브런치 2인)을 드립니다.
 Fax. (063)442-3883 E-mail. dhik0324@hanmail.net
경품 추첨을 위해 팩스, 메일 보내주실 때 반드시 연락처 기재 바랍니다.
 출제: 오성렬(편집위원) 협찬: 에이브호텔 군산

▶ 가로 열쇠

- 01 국가의 정치적 기본 조직을 파괴할 목적으로 무력 폭동을 일으킨 죄.
- 03 감독자의 눈을 피하여 게으름을 피우거나 노는 일. 수업을 무단으로 빼먹는 일.
- 05 바람을 일으켜 보냄.
- 07 오는 사람을 나가서 맞이함.
- 08 흥천사, 해양경찰서 등이 소재한 군산의 행정동명.
- 10 성미가 강팍하고 고집이 세며 모진 사람.
- 12 비밀리에 숨겨진 일.
- 13 돈이나 물품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음.
- 15 모자란 내용을 더 보태고 기워서 다시 출판하는 책.
- 16 병이나 그릇 따위의 아가리를 덮는 물건.
- 17 강이나 하천의 발원지에 가까운 부분.
- 18 시간상이나 순서상의 맨 끝.
- 21 옛 제도나 풍습을 그대로 지키고 따름.
- 23 투수, 포수, 홈런 등의 용어가 쓰이는 운동 경기.
- 24 상속 재산 가운데 특정 상속인을 위하여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
- 26 이십사절기의 하나로 이때부터 봄이 시작된다고 하는 날.
- 28 다달이 받는 정하여진 봉급.
- 29 등산객들이 서로 부르거나 외치는 소리.
- 31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소리나 기색.
- 32 대개 42살에서 50세 무렵, 인체가 노년기로 접어드는 시기. 000장 애.

▼ 세로 열쇠

- 01 조선시대에내탕고(內帑庫)에 넣어두고임금이개인적으로쓰던돈.
- 02 죄스럽고황송함.
- 03 계울을지키지않는승려.가짜종.
- 04 막다른데이르러어찌할수없게된지경.
- 06 예로부터전해오는우리나라고유의음악. '어바라, 어서00을올려라.'
- 07 짐승이나물고기따위를세는단위.
- 09 같은시기,같은기간.
- 11 릴레이경기에서앞주자가다음주자에게넘겨주는막대기.
- 12 슬픈기별이나소식.
- 14 아궁이위에숯을얹어놓는언저리.
- 15 천연수를증류하여불순물을제거한물.
- 18 석가모니의어머니. 인도 슈도나디의왕비로 석가모니를 낳고 이레 뒤에 죽었다.
- 19 우리인류가살고있는행성.
- 20 체만식의대표적장편소설.
- 22 물건따위를시들임.
- 24 상위학년으로진급하지못하고그대로남음.
- 25 여러갈래로니누어진범위나부분. 그는경제 00의전문가이다.
- 27 묵은곡식이다떨어져식량이공핍한불철의때.
- 28 낚은물고기가한자가넘음. 또는그물고기.
- 30 호구와 고객의 합성어로, 어수룩하여 이용해먹기 좋은 손님을 낮잡아 이르는말.

"매거진군산 새만금과 함께할 필진을 모집합니다"
 연락처: 063-445-4700
 이메일: dhik0324@hanmail.net